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韓國 映畫에 나타난 팜프파탈 이미지와  
캐릭터 스타일링에 관한 研究  
- 의상,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 藝術學科

扮裝藝術學專攻

劉 翰 娜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崔喜子

韓國 映畫에 나타난 팜므파탈 이미지와

캐릭터 스타일링에 관한 研究

- 의상,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emme Fatale Image and

Character Styling in the Korean Films

- Focused on Clothes, Hairstyle, and Makeup -



HANSUNG  
UNIVERSITY

2008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 藝術 學科

扮裝藝術學專攻

劉 翰 娜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崔喜子

韓國 映畫에 나타난 팜프파탈 이미지와  
캐릭터 스타일링에 관한 研究  
- 의상,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emme Fatale Image and  
Character Styling in the Korean Films  
- Focused on Clothes, Hairstyle, and Makeup -

위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 藝術學科

扮裝藝術學專攻

劉 翰 娜

劉翰娜의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2008年 12月 日



審查 委員長 印

審查 委員 印

審查 委員 印

HANSUNG  
UNIVERSITY

# - 目 次 -

I.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	3
II. 팜프파탈의 이론적 배경 .....	5
1. 팜프파탈의 어원과 개념 .....	5
2. 팜프파탈 이미지의 탄생배경 .....	7
III. 팜프파탈 이미지 고찰 .....	11
1. 19세기 이전 문학과 회화에 나타난 팜프파탈 이미지 .....	12
2. 19세기 이후 문학과 회화에 나타난 팜프파탈 이미지 .....	17
3. 서양 영화에 표현된 팜프파탈 이미지 .....	31
1) 서양 영화에 나타나기 시작한 팜프파탈 .....	33
2) 필름 느와르 시대의 팜프파탈 (1940~70년대 이전) .....	39
3) 현대 서양 영화에 나타난 팜프파탈 (1970년대 이후) .....	44
IV. 한국 영화에 표현된 팜프파탈 이미지 분석 .....	51
1. 한국 영화에 나타나기 시작한 팜프파탈(1950~60년대) .....	52
2. 현대 한국 영화에 나타난 팜프파탈(1990년대 이후) .....	68
V. 팜프파탈 이미지의 캐릭터 스타일링 작품 연구.....	91
1. 모델선정 .....	91
2. 캐릭터 스타일링 작품.....	92
1) 신여성 이미지 .....	92
2) 청순한 이미지 .....	95
3) 관능적인 이미지 .....	98
4) 전위적인 이미지 .....	101

VI. 결론 .....104

참고문헌 .....108

ABSTRACT.....110



## - 표 목 차 -

<표 1> 영화 ‘자유부인’의 캐릭터 스타일링 비교 .....	56
<표 2> 영화 ‘지옥화’의 캐릭터 스타일링 비교 .....	59
<표 3> 영화 ‘하녀’의 캐릭터 스타일링 비교 .....	62
<표4> 영화 ‘불나비’의 캐릭터 스타일링 비교 .....	66
<표 5> 영화 ‘블랙잭’의 캐릭터 스타일링 비교 .....	70
<표 6> 영화 ‘Tell me Something’의 캐릭터 스타일링 비교 .....	73
<표 7> 영화 ‘얼굴 없는 미녀’의 캐릭터 스타일링 비교 .....	76
<표 8>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캐릭터 스타일링 비교 .....	79
<표 9> 영화 ‘타짜’의 캐릭터 스타일링 비교 .....	83
<표 10> 영화 ‘무방비도시’의 외적 스타일 비교 .....	86
<표11> 한국 영화에 나타난 팜프파탈의 캐릭터 스타일링 분석 .....	90
<표 12> 신여성 이미지의 캐릭터 스타일링 .....	78
<표 13> 청순한 이미지의 캐릭터 스타일링 .....	81
<표 14> 관능적 이미지의 캐릭터 스타일링 .....	84
<표 15> 전위적 이미지의 캐릭터 스타일링 .....	87
<표 16> 모델 선정 및 모델의 프로필 .....	91
<표 17> 신여성 이미지의 캐릭터 스타일링 .....	92
<표 18> 청순한 이미지의 캐릭터 스타일링 .....	95
<표 19> 관능적 이미지의 캐릭터 스타일링 .....	98
<표 20> 전위적 이미지의 캐릭터 스타일링 .....	101



## - 그림 목차 -

(그림 1) Giampietrino, Salome, 1510-30 추정.....	15
(그림 2) Guido Reni, Salome with the head of Saint John Baptist, 1639-1640.....	15
(그림 3) Peter Paul Rubens, Head of Medusa, 1617.....	16
(그림 4) Artemisia Gentileschi, Judith beheads Holofernes, 1620...	17
(그림 5) Edouard Manet, Nana, 1877.....	20
(그림 6) Dante Gabriel Rossetti, Beata Beatrix, 1863-70 .....	23
(그림 7) Dante Gabriel Rossetti, Lady Lilith, 1868 .....	23
(그림 8) Franz von Stuck, Salome, 1906 .....	25
(그림 9) Gustave Moreau, Salome dancing before Herod, 1876.....	25
(그림 10) John Collier, Lilith, 1887 .....	26
(그림 11) Edvard Munch, Madonna, 1895-1902 .....	26
(그림 12) Gustave Klimt, Judith with the head of Holofernes (Judith I), 1901-1902 .....	28
(그림 13) Gustave Klimt, Judith II, 1907-1909 .....	28
(그림 14) 영화 ‘A Fool There Was’의 포스터 .....	34
(그림 15) 영화 ‘A Fool There Was’의 Theda Bara .....	34
(그림 16) 영화 ‘My lady of Whims’의 Clara bow 1.....	35
(그림 17) 영화 ‘My lady of Whims’의 Clara bow 2.....	35
(그림 18) 영화 ‘The Temptress’의 Greta Garbo.....	36
(그림 19) 영화 ‘Flesh And the Devil’의 Greta Garbo .....	36
(그림 20) 영화 ‘Morocco’의 Marlene Dietrich .....	37
(그림 21) 영화 ‘The Blue Angel’의 Marlene Dietrich .....	37
(그림 22) 영화 ‘Pandora’ s Box’의 포스터 .....	38

(그림 23) 영화 ‘Pandora’ s Box’의 Louise Brooks .....	38
(그림 24) 영화 ‘The Maltese Falcon’의 Marry Astor.....	42
(그림 25) 영화 ‘Double Idemnity’의 Barbara Stanwyck .....	42
(그림 26) 영화 ‘Gilda’의 Rita Hayworth 1.....	43
(그림 27) 영화 ‘Gilda’의 Rita Hayworth 2.....	43
(그림 28) 영화 ‘Body Heat’의 Kathleen Turner .....	47
(그림 29) 영화 ‘Fatal Attraction’의 Glenn Close. ....	47
(그림 30) 영화 ‘Basic Instinct’의 Sharon Stone .....	49
(그림 31) 영화 ‘L.A. Confidential’의 Kim Basinger .....	49
(그림 32) 영화 ‘Original Sin’의 청순한 Angelina Jolie .....	50
(그림 33) 영화 ‘Original Sin’의 강한 Angelina Jolie .....	50
(사진 34) 영화 ‘자유부인’의 한복을 입은 김정림 .....	57
(사진 35) 영화 ‘자유부인’의 양장 차림의 김정림 .....	57
(그림 36) 영화 ‘지옥화’에서 최은희 메이크업 .....	60
(그림 37) 영화 ‘지옥화’의 최은희1 .....	60
(그림 38) 영화 ‘지옥화’의 최은희2 .....	60
(그림 39) 영화 ‘성춘향(1961년)’의 최은희 .....	60
(그림 40) 영화 ‘하녀’의 동식 아내 역 주중녀 .....	63
(그림 41) 영화 ‘하녀’의 이은심.....	63
(그림 42) 영화 ‘불나비’의 김지미 1.....	67
(그림 43) 한복 차림의 김지미 .....	67
(그림 44) 영화 ‘불나비’의 김지미2 .....	67
(그림 45) 영화 ‘불나비’의 김지미3 .....	67
(그림 46) 영화 ‘블랙잭’의 섹시한 강수연 .....	71
(그림 47) 영화 ‘블랙잭’의 청순한 강수연1 .....	71
(그림 48) 영화 ‘Tell me Something’의 청순한 심은하.....	73

(그림 49) 영화 ‘Tell me Something’의 화려한 심은하 .....	73
(그림 50) 영화 ‘얼굴 없는 그녀’의 청순한 김혜수 .....	77
(그림 51) 영화 ‘얼굴 없는 그녀’의 강한 김혜수1 .....	77
(그림 52) 영화 ‘얼굴 없는 그녀’의 강한 김혜수2 .....	77
(그림 53) 영화 ‘얼굴 없는 그녀’의 강한 김혜수3 .....	77
(그림 54)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청순한 이영애 .....	80
(그림 55)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이영애 메이크업. ....	80
(그림 56)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이영애1. ....	80
(그림 57)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이영애2. ....	80
(그림 58) 영화 ‘타짜’의 청순한 김혜수 .....	83
(그림 59) 영화 ‘타짜’의 김혜수1 .....	83
(그림 60) 영화 ‘타짜’의 김혜수2 .....	84
(그림 61) 영화 ‘타짜’의 김혜수3 .....	84
(그림 62) 영화 ‘무방비도시’의 청순한 느낌의 손예진 .....	87
(그림 63) 영화 ‘무방비도시’의 손예진 메이크업 .....	87
(그림 64) 영화 ‘무방비도시’의 손예진1 .....	87
(그림 65) 영화 ‘무방비도시’의 손예진2 .....	87
(그림 66) 화장하지 않은 얼굴의 모델 .....	91

- 작품 목차 -

(작품 1) 신여성 이미지 상반신 .....	93
(작품 1) 신여성 이미지 전신 .....	94
(작품 2) 청순한 이미지 상반신 .....	96
(작품 2) 청순한 이미지 전신 .....	97
(작품 3) 관능적 이미지 상반신 .....	99
(작품 3) 관능적 이미지 전신 .....	100
(작품 4) 전위적 이미지 상반신 .....	102
(작품 4) 전위적 이미지 전신 .....	103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현대 사회에서 여성은 보수적이었던 이전 시대의 여성들과 다르게, 사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여성의 지위가 점차 높아지고 여성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의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생각되곤 했다. 그러나 19세기말 여성의 해방 운동이 시작되면서 남성들의 권력에 대한 위협과 성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제1차 대전 이후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여성의 사회 활동에 대한 혐오적 시각이 생기게 되면서 여성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예술에 고스란히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 여성의 성적 매력과 관련해 나타나기 시작한 ‘팜프파탈(Femme Fatale)’<sup>1</sup>은 관능성을 지닌 여성으로 죽음의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랑에 빠진 남자를 죽음과 파멸에 이르게 할 만큼 치명적 매력을 지닌 숙명적 여인을 뜻한다. 팜프파탈은 남성적 시각에서 관능의 충족이자,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남성들이 느끼는 사회적 위협의 대상으로 표출시켰다. 그에 따라 팜프파탈 이미지는 정치, 문화, 사회 등 19세기의 여러 분야에서 왜곡된 여성상으로 표현되었으며, 여성은 남성의 성적 욕구를

<sup>1)</sup>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팜파탈’로 표기되어야 하나, 1997년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에 수록되었고, 또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발음인 ‘팜프파탈’로 표기하였다.

일으키는 존재로 간주되고 여성의 성적 특징에 관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하는데 이용되었다.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영화, 광고와 패션 전반에 대중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최근에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해져 21세기의 강력한 문화 아이콘으로 부상하였다.

팜프파탈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필름 느와르(Film Noir)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성적인 암시가 패션에서 점차 허락되어가던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팜프파탈로 등장하는 영화에서 여배우의 스타일은 점차 대중화되어 갔다. 소비문화의 확산과 함께 영화, 광고 등 대중매체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관능적 육체와 성의 이미지를 지닌 팜프파탈은 대중적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팜프파탈의 이미지가 발전하게 된 원인과 문학, 미술을 포함한 예술이 팜프파탈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려 했고, 특히 20세기 이후 대중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영화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팜프파탈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19세기 이후부터의 작품들과 한 시대의 예술분야로서 인간의 욕구와 미의식의 표현하고자 외형적으로 나타난 팜프파탈 이미지를 고찰하고, 영화에서 팜프파탈의 이미지를 완성하기 위해 나타난 패션과 헤어, 메이크업 등 미용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분석하고, 영화에 나타난 팜프파탈 이미지 분석을 통해 캐릭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의상,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의 컨셉을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즉, 영화에서 팜프파탈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기 위하여 차별화된 캐릭터 스타일링의 연출을 실무자들에게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은 팜프파탈의 다양한 이미지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팜프파탈이 다양한 트렌드로 제시되고 있는 요즘, 기존의 연구에서 팜프파탈은 회화와 문학, 패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미지로 고찰되어왔으나 한국 작품, 특히 한국 영화에서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 영화에 표현된 팜프파탈 이미지 분석으로 제한하여,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시도된 의상,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스타일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에 앞서 팜프파탈 이미지가 형성되게 된 계기와 그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의 범위는 팜프파탈 이미지가 생성된 19세기를 전후로 하여 문학과 회화를 중심으로 한 예술에서부터, 팜프파탈이라는 용어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1940년대를 거쳐 현대 영화까지로 하였으며, 연구 목적에 부합된 결과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팜프파탈의 정의와 형성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팜프파탈 이미지가 나타난 시기부터 19세기를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나타난 팜프파탈을 중심으로 그 이미지와 사회적, 시대적 의미에 관한 규명을 시도하였다. 국내외 논문과 서적을 바탕으로 한 문헌 연구를 통해 주로 문학과 상징주의 화가들이 그린 팜프파탈을 소재로 그린 작품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둘째, 20세기 이후 영화라는 대중 예술 속에 팜프파탈이 나타나게 된

계기와 그 캐릭터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팜프파탈 영화는 필름 느와르가 유행하던 1940년대에 자주 등장하였으나 잠시 주춤하다가 1970년대 이후 부활하여 다양한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화에서의 팜프파탈 이미지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나누어 표현 방법을 살펴보았으며, 영화 내용과 등장하는 팜프파탈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셋째, 한국 영화에 나타난 팜프파탈 이미지를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표현된 의상, 헤어, 메이크업의 스타일을 영화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분석하였다.

넷째, 한국 영화에 나타난 팜프파탈 이미지를 4가지 여성형으로 분류하고, 각기 다른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캐릭터 스타일링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선행 연구 자료, 서적, 각종 기사를 참조하였고, 영화 분석 자료로는 영화 홍보에 사용된 포스터와 국내외 영화 잡지에 제시된 사진, 한국영상자료원에 보관된 한국 고전 영화의 VOD 자료와 현대 영화의 비디오, DVD, UCC 등의 인터넷 서비스를 직접 사진으로 캡처하여 제시하였다.



## II. 팜므파탈의 이론적 배경

### 1. 팜므파탈의 어원과 개념

팜므파탈은 프랑스어로 남성을 유혹해 죽음이나 고통 등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게 만드는 '숙명의 여인'을 뜻하는 사회심리학 용어이다.<sup>2)</sup> 불어로 여성을 의미하는 명사 '팜므(femme)' 와, '숙명적인, 운명적인' 의미의 형용사인 '파탈(fatale)' 의 복합어인 팜므파탈은 19세기 낭만주의 작가들에 의해 문학작품에 주요 주제로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 미술, 연극, 영화 등 다양한 장르로 확산되어, 남성을 죽음이나 고통 등 치명적 상황으로 몰고 가는 '악녀(惡女), '요부(妖婦)' 를 뜻하는 말로까지 확대, 변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전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한국어 '요부' 또는 독일어인 'Verhängnisvolle frau(페어항니스폴레 프라우)', 영어인 'Fatal woman(페이틀 우먼) 등의 번역어보다 불어 용어 그대로를 사용하여, 팜므파탈이라는 용어 자체가 고유 명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팜므파탈(Femme fatale)' 에서 운명적이라는 의미의 'fatale' 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의 여성으로 상대 남성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을 압도하는 잔인한 매력에 의해 남성은 파국을 맞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팜므파탈의 속

<sup>2)</sup> 네이버 백과사전 '팜므파탈' 참조 -  
(<http://100.naver.com/100.nhn?docid=772427>)

성이다. 이러한 점에서 팜프파탈은 종교적, 신화적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팜프파탈의 기원을 찾아보면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선사시대부터 계속된 여신숭배의 전통은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변하고 가부장제 사회가 정착되면서, 점차 여신의 권위는 사라지고 마녀로 치부되기 시작하였고, 여성은 점차 아내, 어머니 등의 역할만을 강요 받게 되었다.

팜프파탈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이전 19세기에 먼저 등장했던 개념은 ‘팜프 프라질(Femme Fragile)’ 이었다. 지금의 팜프파탈 이미지와 반대로, 병약하고 창백한 아름다움을 가진, 가냘프고 여성스러운 몸짓을 보이는 관능이 배제된 정신적인 고상함을 지니고 있는 여성을 뜻한다. 이러한 팜프프라질은 공포의 대상인 질병 및 죽음과 결합되고 미학적으로 변형되어 세기말에 팜프파탈이라는 용어로 변모되어 갔던 것이다.<sup>3)</sup>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유럽의 문학, 회화 등 예술에서는 이전의 가부장적 사회의 수동적인 여성과는 다른 모습의 여성의 이미지를 다룬 작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점차 팜프파탈의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화가들은 여성을 남성에게 치명적인 마력을 지닌 캐릭터들, 이브, 마돈나, 살로메 등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들은 성(性)적 매력을 이용해 지배적이었던 남성으로부터 독립된 형상이었다. 이와 같이 19세기 후반에 나타난 성적이고 파괴적인 새로운 여성상은 19세기말 문화에서 가장 현저하게 보여지는 것이었지만, 팜프파탈이라는 용어

---

<sup>3)</sup> 이화진(1998), 「팜프파탈 Femme Fatale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4

가 나타난 것은 20세기에 이르러서였다. 1903년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는 팜프파탈이라는 용어를 직접 만든 이는 아니지만, 그의 저서 ‘워렌의 고백(Mrs. Warren’s Profession)’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1912년 극 비평에 관한 글에서 다시 사용하였다.<sup>4</sup> 사실상 팜프파탈이라는 용어는 원래 영국인들이 프랑스 여성은 관능적이고 위험하다는 뜻으로, 프랑스 여성을 지칭한 데서 어원을 찾을 수 있으나 점차 관능적이고 치명적인 여성을 지칭하는 명사가 되었고<sup>5</sup>, 쇼에 의해 공식적으로 용어가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 용어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후반 프랑스의 영화평론지 「카이에 뒤 시네마(Cahiers du Cinema)」의 평론가들에 의해서이다.<sup>6</sup> 이들이 2차 대전 전후 시기인 40년대부터 60년대의 B급 범죄 스릴러 영화를 필름 느와르(Film Noir)로 분류하면서 이 영화들이 가지고 있던 경향과 특징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자연스럽게 대중화된 것이다.

## 2. 팜프파탈 이미지의 탄생배경

팜프파탈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볼 때 이 시기에 나타난 여러 사상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연과학과 산업 기술의 발달과 병행하여 18세기부터 나타난 계몽주의는 일반 대중에게 개성, 주체성을 심어주었고,

<sup>4</sup>) 이화진, op.cit., p.4.

<sup>5</sup>) Virginia M.Allen, *The Femme Fatale*, The Whitston Publishing Company,1983,p.2.

<sup>6</sup>) 네이버 용어 사전 참조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5&docId=1599>)

실증주의의 유행으로 인해 대중은 이와 같은 근원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변화를 겪고 난 후 과거의 사회적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시각을 가지기 시작했다. 대중은 계급의 타파, 평등한 인권을 주장했고, 1989년부터 시작된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독립운동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대혁명이 이루어져갔다. 특히 19세기에 프랑스 혁명이 전 유럽에 미친 영향은 막대하여 자유민주주의와 민족주의가 일어나게 했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의식 성장을 가져오고 사회적 투쟁을 불러일으켰다. 여성도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게 되고, 여성 인권운동이 등장하였다. 점차적인 여성 지위의 변화는 1967년 영국의회에서 여성 투표권과, 1870년 이혼 여성의 재산권을 인정하면서 여성의 법적 권리를 가져왔다. 이 시대의 남성들은 이러한 여성의 변화로 인해 사회적 지위에 위기를 느끼고 증오와 공포, 욕망과 죽음의 모순된 심리 속에서 방황하였고, 이러한 복잡한 심리가 표출되어 매력적이지만 남성을 파멸시킬 수 있는 사악한 팜프파탈 이미지를 만들게 된 것이다.

학문에 있어서는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성(性)이 학문적 주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중 1896년 프로이트(Freud)가 발표한 정신분석 이론 중 발달 이론은 비이성적으로 생각되었던 성적 행위들을 분석하고 인간의 발달 과정과 성격 형성 과정을 성적인 면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여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게끔 하였다. 발달 단계 5단계 중 3단계인 남근기에 인간은 남근의 유무에 따라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고 서로 다른 욕망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자는 남근을 잘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세공포를 가지게 되고, 여자는 남근이 없음을

깨달아 성의 차이를 인식하는 동시에 남자에 비해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남근을 갖기를 갈망하는 남근선망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거세욕구가 생겨난다.<sup>7)</sup> 남성들의 시각에서 여성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 타인을 해치려는 필연적으로 위험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프로이드의 거세 욕구에 대한 이론은 이 시기의 많은 작품 속에서 여성이 남성의 목을 베는 것이 왜 소재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남성은 유혹적으로 다가와 치명적 불행을 안겨주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경계해야 하며 이러한 남성의 두려움이 문학이나 회화를 통해 표출된 것이 팜프파탈의 이미지인 것이다.

또한 예술 사조에 있어서는 인간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는 낭만주의가 18세기에 등장하여 19세기까지 지배하고, 점차 탐미적이고 퇴폐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유태주의<sup>8)</sup>, 상징주의<sup>9)</sup>, 쾌락주의<sup>10)</sup>로 변형되어 유행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었고, 퇴폐적이고 추악한 것에서 새로운 미(美)를 발견하는 ‘데카당스(decadence)’ 예술사조가 발전하게 되었다. 데카당스는 쇠퇴, 몰락의 의미의 프랑스어로 영국을 비롯해 유럽전역에서 유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예술사조는 점차 비윤리적이고 악마적인 성향을 갖는 탐미주의, 표현주의 같은 새로운 예술사조로 진화하게 되고, 현실도

7) 한국심리학회(2003), 『현대 심리학의 이해』, 학문사, pp. 420-430

8) 아름다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이를 추구하는 문예 사조. 미적 가치를 가장 지고한 가치로 보고 모든 것을 미적인 견지에서 평가하는 태도 및 세계관

9) 상징적인 방법에 의하여 어떤 정조나 감정 따위를 암시적으로 표현하려는 태도나 경향. 19세기 말 프랑스를 중심으로, 사실주의나 자연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났다.

10) 쾌락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목적이라 생각하고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 내지 도덕의 원리로 생각하는 사상. 행복주의의 하나이며, 고대 그리스의 에피쿠로스에서 시작하였다.

피적 성향과 함께 극단적인 염세주의<sup>11)</sup>의 경향을 보여 근대적 생산에 반대하고 수공예를 향수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러한 예술사조 분위기는 어둡고 퇴폐적인 새로운 도시적 사회와 잘 어울렸고, 이러한 예술사조의 유행은 매력과 공포의 상반된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여성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도덕성을 무시한 속성을 지닌 악마적 여성상인 팜프과탈의 부흥을 가져왔다. 화가, 작가 등의 예술가들은 그들의 작품에서 성서와 신화 속 여인을 팜프과탈로 재해석하기 시작하였고 19세기말에 이르러서는 매력과 치명성, 관능과 죽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예술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다. 세기말의 불안감과 새로운 세기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전반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이전의 도덕적이고 정숙한 미인보다 고전적 신화나 성서에서 사악하게 표현된 이브, 유디트, 살로메, 데릴라 등에 관심을 갖게 만든 것이다.



---

<sup>11)</sup> 세계나 인생을 불행하고 비참한 것으로 보며, 개혁이나 진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경향이나 태도

### Ⅲ. 팜프파탈 이미지 고찰

팜프파탈 이미지는 18세기 문학과 회화에서부터 인식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어, 하나의 개념으로 단순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아 문학, 미술, 영화 등 여러 예술분야에 나타난 팜프파탈 이미지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18세기부터 나타난 팜프파탈의 이미지는 회화보다 문학에서 먼저 나타났다. 이 시기의 문학작품에서는 현모양처와 타락한 요부형의 여성이 상반된 유형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상으로 현모양처를 그리고, 사회에서 활동하는 여성은 타락한 여성으로 그려졌다. 그래서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회 활동을 하는 여성은 성적인 문제와 연관되고 불행한 결말을 맞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팜프파탈의 이미지는 19세기말의 팜프파탈의 데카당스한 특징은 문학보다는 회화에서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인간 묘사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은 나르시즘 콤플렉스의 표상이며 선과 악, 신과 사탄의 상호 대립적 존재를 결합하는 것으로 심연과 권태 또는 불안의 형상으로 인간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전의 스타일에 권태를 느껴 과거와 전혀 다른 스타일을 창조하려는 노력이 감행되어, 여성을 요부나 독립적인 모티브 혹은 남성을 파멸로 몰고 가는 여성으로 나타내게 된 것이다.<sup>12)</sup> 급속한 산업

---

<sup>12)</sup> 송미숙(1990), 「보들레르와 상징주의」,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제 2집, p.21.

발달과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생긴 패배감과 세기말적 불안의 현상이 팜프파탈이라는 이미지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팜프파탈은 그것을 모티브로 한 여러 예술 장르, 즉, 문학과 회화, 무용과 오페라를 통해 1890년대부터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지에서 범유럽적으로 표출되었다. 세기 전환기에는 거의 모든 예술사조가 불안의 현상 속에서 혼재되고 있으나, 예술 사조 모두를 살펴보는 것은 어려우므로 먼저 팜프파탈 이미지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19세기를 기점으로 하여 19세기 이전과 이후의 문학과 회화를 중심으로 한 작품을 시대순으로 살펴보았다.

## 1. 19세기 이전 문학과 회화에 나타난 팜프파탈 이미지

19세기 이전에는 팜프파탈이라는 구체적인 언어로 언급된 적은 없었지만, 마녀 또는 요부 등으로 팜프파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한 여성상은 존재하고 있었다. 유대 신화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성인 릴리트(Lilith)도 그 예가 될 수 있다. 릴리트는 흔히 대중이 최초의 여자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이브(Eve) 이전의 여성으로, 아담과 함께 흙으로 빚어진 최초의 사람이었다. 최초의 여성인 릴리트는 음탕하고 사악하여 낙원에서 추방되게 된다. 그녀를 대신해 아담(Adam)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이브 역시, 아담을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한 남성을 파멸로 몰고 간 사악한 여성으로 그려져, 남성 중심의 유럽 사회에서 신앙처럼 전해졌으며, 종교의 힘을 얻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에 근거한 신화가 오래도록 전해지면서 여성의 관능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망과 두려움을 심어주었는데, 릴리트, 이브를 비롯하여 살로메 (Salome), 유디트 (Judith), 메두사(Medusa), 라미아(Lamia) 등이 신화적 이야기를 통해 매혹적이고 때로는 위험성을 가진, 결국에는 남성들을 불행하게 하는 여성들로 그려졌다. 이렇게 절대적인 여신과 같은 힘을 가진 여성들의 이야기가 신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예술가들은 이것을 소재로 상징성을 지닌 작품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문학의 경우 18세기말부터 팜프파탈이 등장하여 회화보다 빠르게 작품에 투영되기 시작하였다. 1796년 영국에서 익명으로 출간되었었던, 루이스(Lewis)의 고딕 소설 <수도승(The Monk)>에서는 권위적인 성직자였던 암브로시오(Ambrosio)를 유혹하여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한 마틸다(Matilda)를 마녀적 이미지로 그려<sup>13</sup> 팜프파탈의 이미지를 문학작품에서 보여주었다. 이 시기까지 보여진 팜프파탈 여성들은 19세기 이후에 보여지는 관능성을 위주로 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흡혈귀적 동물성과 죽음의 이미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상징성을 지녔다.

19세기 이전의 회화에서는 주로 드라마틱한 인생의 신화 속 여성을 주인공으로 보여주는데 그쳤다는 점에서 그 이후의 회화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팜프파탈이 지닌 관능성보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보여줌으로써 마녀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16세기 초 르네상스

---

<sup>13)</sup> 김일영(1999), 「『Lewis의 수사 The Monk』에 나타난 회의주의」, 한국근대영미소설학회 근대영미소설 제6집 제1호, pp.109-127.

잠피에트리노(Giampietrino)의 <살로메(Salome)><그림 1>는 새하얀 피부에 차가운 표정으로 성 요한(John the Baptist)의 잘린 목을 들고 있는 여성으로 그려 냉혹한 여인의 공포를 느끼게 하였다. 헤롯(Herodes)과 결혼한 헤로디아(Herodias)의 딸인 살로메가 계부 헤롯의 생일 축하연에서 아름답게 춤을 추어 헤롯의 관심을 받아내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자 어머니인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아 평소 헤롯과의 결혼에 대해 비판하던 성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 얻어내는 <신약성서>의 이야기를 이용해 그려낸 것이다.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유행하였던 창백하고 하얀 피부 화장에 홍조 띤 듯이 처리한 볼터치와, 왁스를 사용하여 눈썹의 잔털을 뽑아 얇게 정리한 화장법이 이 작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 당시 샤프란과 양파껍질을 섞어 만든 물감을 이용하여 염색한 금발이 유행하였는데, 이 그림에서도 금발에 가까운 밝은 색으로 이마가 넓어 보이게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 묶은 헤어스타일에 천을 머리 위에 모자처럼 둘러쓴 모습으로 그려졌다.

17세기 이탈리아 화가 귀도 레니(Guido Reni)는 그의 작품 <세례 요한의 머리를 받아 든 살로메(Salome with the head of Saint John the Baptist)><그림 2>에서 살로메를 더욱 잔인하고 냉정한 미녀로 표현했다. 옷 끝이 땅에 닿지 않도록 들어올리면서 드러난 발은 성적으로 그녀가 타락한 여인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고, 쟁반 위에 얹은 창백한 요한을 바라보는 살로메의 표정에서 오싹한 기운과 동시에 여성의 절대적인 힘으로부터 공포를 느낄 수 있다.<sup>14</sup> 메이크업과 의상에 있어서는

---

<sup>14)</sup> 이명옥(2003), 『팜프파탈』, 다빈치, pp.13-14.

17세기에 가장 많이 사용된 의상색인 심홍색의 풍성한 드레스와 당시 유행하던 창백한 얼굴에 뺨의 위치보다 아래까지 불터치, 작고 붉은 입술이 그림에서도 나타났다.



(그림 1) Giampietrino, Salome,  
1510-30 추정  
(<http://www.nationalgallery.org.uk>)



(그림 2) Guido Reni, Salome with  
the head of Saint John Baptist,  
1639-1640  
(<http://www.wga.hu/>)

17세기 초 작품인 루벤스(Rubens)의 <메두사의 머리(Head of Medusa)><그림3> 역시 에로틱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팜프파탈의 이미지 중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장면으로서 메두사를 표현했다. 메두사는 그리스 신화의 고르고 세 자매 중 하나로, 원래는 탐스러운 머릿결을 지닌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나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신성한 아테네 신전에서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과 정을 나눠 아테네 여신의 분노를 사 머리가 뱀으로 바뀌며 괴물이 되었고 그와 눈이 마주치면 돌로 변하는 저주 때문에, 페르세우스에게 목을 잘려 죽었다. 메두사의 이야기는

성욕과 쾌락, 죽음과 공포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으나, 루벤스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부릅 뜬 눈과 낭자(狼藉)된 유혈(流血), 어지럽게 흩어져있는 뱀을 그림으로써 공포를 극대화하였다.



(그림 3) Peter Paul Rubens, Head of Medusa,  
1617

(www.naver.com)

유대인 미망인에 대한 설화이자 성서 <유디트서(書)>의 주인공 유디트(Judith) 역시 많은 화가들에게 모티브가 되었다. 유디트는 조국을 구하기 위해 적국(敵國)인 앗시리아의 홀로페르네스(Holofernes)를 유혹하고 그의 목을 베어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적 여성이지만, 애국적 면보다는 남자의 목을 베어 잔인한 여성이라는 치명적인 면이 강조되어 나타났다. 카라밧지오(Caravaggio),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 등 많은 화가들이 유디트에 대한 그림을 그렸지만, 그 중 17세기 여성 화가로 추정되는 아르테미시아 겐틸레스키(Artemisia Gentileschi)의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Judith beheads Holofernes)><그림 4>은 잔혹함에 있어 최고로 꼽히는 작품 중 하나이다. 몸종 아브라와 함께 커다란 칼로 자고 있던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렸다.



(그림 4) Artemisia Gentileschi, Judith  
beheads Holofernes, 1620  
(<http://www.metmuseum.org>)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세기 이전의 문학과 회화에서 나타난 팜므파탈 이미지는 주로 신화나 성서에 나온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녀들의 관능성보다는 죽음과 공포를 중점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 2. 19세기 이후 문학과 회화에 나타난 팜므파탈 이미지

낭만주의 문학이 유행하던 19세기 초부터는 요부의 이미지가 예술의 영역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사악한 여성의 이미지가 고급문화의 영역에서 그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초 낭만주의 문학에서다. 영국의 시인 존 키츠(Jone Keats)의 1829년 작품인 시 <La Bella Dame Sans Merci(잔인한

미녀)>은 머리카락으로 남성의 목을 졸라 죽이는 미인을 마술적이면서 신비스러운 고통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팜므파탈과 상징주의를 미리 예견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sup>15</sup> 그의 또 다른 시 <라미아(Lamia)>에서는 그리스 신화 속 제우스의 사랑을 받아 헤라로부터 질투를 받게 되어 하반신이 뱀꼬리가 되고, 어린이와 낯선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된 라미아를 황금, 초록과 청색의 무늬가 박힌 현란한 뱀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키츠는 자신의 시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잔인하고 남성을 파멸시키는 냉혹한 존재로 그림으로써 상징주의와 팜므파탈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프랑스의 작곡가 조르주 비제(Georges Bizet)의 오페라로 널리 알려진 <카르멘(Carmen)> 역시 원작은 19 세기 초에 쓰여진 작품이다. 1845 년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고고학자였던 프로스페르 메리메(Prosper Mérimée)가 답사여행기 형식으로 쓴 소설 <카르멘(Carmen)>은 한 고고 학자가 스페인을 여행하던 중 알게 된 전직 군인인 사형수 돈 호세의 이야기를 듣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히브리어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여인이라는 뜻의 열정적인 집시 여인 카르멘을 사랑함으로써 저지르게 된 살인, 탈주 등의 이야기이다. 동료 여공을 칼로 찔러 감옥으로 가던 카르멘을 연행하던 도중 그녀의 미모에 빠진 호세는 그녀의 탈주를 돕고, 그녀의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묵인해주는 대신 카르멘의 사랑을 얻게 된다.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그녀의 주변 남자들에게 질투를 느끼고

---

<sup>15)</sup> 박정란(2004), 「회화에 나타난 ‘파토스적인 이미지’ 표현 연구」,홍익대 회화과 석사학위 논문, p.31.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함께 미국으로 가자는 말을 거부한 채 자유분방한 삶을 요구하는 카르멘을 찌르게 되고, 결국 자수하는 내용으로 끝이 난다. 검은 눈동자에 까무잡잡한 피부, 관능적인 외모의 카르멘 역시 그녀의 미모 때문에 남성들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 결국 자신과 남성 모두 파멸에 빠지게 만드는 팜프파탈이었다.

1880년 프랑스의 작가 에밀 졸라(Emile Zola, 본명:Emile Edouard Charles Antoine Zola)의 루공 마카르 가문의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한 <루공 마카르 총서(Les Rougon Macquart)> 중 제 9권인 소설 <나나(Nana)>는 빈민가 출신의 미모의 창녀를 둘러싼 상류사회의 붕괴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나나는 우연히 눈에 띄어 연극의 주인공으로 발탁되어 화려한 성공을 거두지만 이후 술과 방탕으로 찌들게 된다. 외상값을 재촉하는 상인의 등쌀에 매춘을 하게 되고, 그녀의 아름다운 육체적 매력에 매료된 귀족들은 명예와 재산을 바치게 된다는 내용의 상류층의 타락상과 인간의 성에 대한 욕망을 그린 소설이다. 나나는 팜프파탈의 남성을 파멸로 빠져들게 만드는 전형적인 성격을 지닌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 소설과 관련하여, 에밀 졸라와 친분이 있던 마네(Edouard Mane)는 1877년 소설이 발간되기 전 같은 제목으로 <나나(Nana)><그림 5>를 그렸다. 당시 세도가 오랑주 공의 정부였던 여배우 앙리에트 오제르를 모델로 한 이 작품은 살롱에서 보수적 심사위원들에 의해 풍기문란하다는 이유로 낙선하기도 했다. 나나가 입은 매끈한 소재의 하늘색 코르셋은 당시 여성들이 흰색 코르셋을 입었던 것에 비해 에로틱한 속옷으로 보여졌고, 엉덩이가 강조되는 속옷만

입고도 당당한 표정을 지음으로써 나르시시즘(Narcissism)<sup>16</sup>을 나타내며, 뒤에 중년의 신사가 그녀를 바라보는 것으로 그려 남성들로 하여금 성적 기대를 하게 만들었다.



(그림 5) Edouard Manet, Nana, 1877  
(<http://www.the-athenaeum.org>)

1893년 영국의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의 희곡 <살로메(Salome)>는 <신약성서>의 살로메 이야기를 재탄생 시킨 작품이다. 헤롯왕의 의붓딸인 살로메가 연회장에서 헤롯왕이 던지는 추파를 피해 밖으로 나왔다가, 남편의 동생과 결혼한 살로메의 어머니인 헤로디아의 불륜적 사랑을 비난하여 우물 감옥에 갇힌 요한을 만나게 된다. 살로메는 요한에게 사랑을 느끼고 입맞춤을 원하지만 요한은 간음하여 낳은 딸이라 저주하며 우물 속에 다시 들어간다. 분노를 느낀 살로메가 연회장으로 들어가 헤롯왕 앞에서 요염한 ‘일곱 개 베일의 춤’을 추고, 그녀에게

<sup>16)</sup>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 또는 자기 자신이 훌륭하다고 여기는 일. 그리스 신화의 미소년 나르키소스에서 유래한 말이다.



홀린 헤롯왕은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다. 살로메는 소원으로 요한의 목을 요구하고, 헤롯왕은 살로메의 요구대로 요한을 죽인다. 요한의 목이 쟁반에 받쳐 주어지고 그녀는 피가 흥건한 요한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 성서에서 살로메가 요한에게 비난을 받아 분노한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사주를 받아 왕 앞에서 춤을 추고 요한을 죽이는 헤로디아의 복수의 도구로 묘사 된 것과 달리, 오스카의 희곡에서는 그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요한이 죽게 된다. 사랑의 감정이 증오로 바뀌고 단지 요한과의 입맞춤을 위해 죽이게 되는, 남성을 파멸로 이끄는 주인공으로 각색한 것이다. 이렇게 19세기를 거치는 동안 살로메는 성경과 다른 팜프파탈로 변형되었고, 후에 오페라와 영화로 개작되기도 하였다.

회화에서 본격적으로 팜프파탈의 이미지가 나타나게 된 것은 1870년대를 전후한 시기이다. 19세기 말 유럽에서 유행했던 예술사조 중 팜프파탈 과 관련 있는 것으로 유태주의<sup>17</sup>와 상징주의<sup>18</sup>를 들 수 있다. 유태주의는 16세기 베네치아 예술에 근거를 둔 미를 추구하는 장식적인 미술 경향 이다. 대표적인 화가로는 영국 라파엘 전파의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Dante Gabriel Rossetti)와 프랑스 상징주의의 선구인 구스타브 모로(Gustave Moreau)가 있으며, 이들은 1870년대 팜프파탈의 시각적

---

<sup>17)</sup> 유태주의=탐미주의. 아름다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이를 추구하는 문예 사조. 19세기 후반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나타났으며, 페이더, 보들레르, 와일드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sup>18)</sup> 상징적인 방법에 의하여 어떤 정조나 감정 따위를 암시적으로 표현하려는 태도나 경향. 19세기 말 프랑스를 중심으로, 사실주의나 자연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났다.

도상을 확립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9)</sup> 영국의 시인이자 화가였던 로제티는 초기 상징주의자로 빅토리아 시대의 미에 대한 경향을 반영한 사치스럽고 장식적인 그림을 주로 그렸는데 섬세한 터치와 화려한 색채를 이용하여 세기말 심미주의, 상징주의 문학과 미술에서 유행하던 팜프파탈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팜프파탈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의 첫 작품인 <베아타 베아트릭스(Beata Beatrix)><그림 6>는 그의 뮤즈이자 연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시달(Elizabeth Eleanor Siddal)이 자신의 바람기로 인한 스트레스와 약물중독으로 죽은 후, 그녀를 애도하며 그린 그림으로, 고개를 젓히며 노출된 목, 반쯤 벌린 입술과 살짝 감은 눈으로 신비스럽고 관능적 분위기를 표현하여 팜프파탈의 초기 유형을 형성했다.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의 소설 <파우스트(Faust)>에 영감을 받아 그린 <레이디 릴리트(Lady Lilith)><그림 7>에서는 가슴라인이 깊게 파인 화려한 의상과 아름다운 꽃, 장식적 패턴의 배경 속에 릴리트가 곱게 화장 한 채 구불구불한 긴 머리를 빗으며 단장하는 관능적 모습을 표현했다. 이후 거울을 보며 화장하고 머리를 빗는 여성의 이미지는 이 시기의 많은 화가들이 즐겨 그리는 주제가 되었는데,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나르시시즘(Narcissism)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여성의 19세기말 남성들의 사회적 정체성의 혼란과 함께 나타났던 퇴폐적인 성적취향에 의한 남성의 관음증과 머리카락으로 남성의 성적 페티쉬(fetish)<sup>20)</sup>를 충족 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

<sup>19)</sup> 박정란, op.cit., p.31.

<sup>20)</sup> 성적(性的) 감정을 일으키는 대상물



(그림 6) Dante Gabriel Rossetti,  
Beata Beatrix, 1863-70  
(<http://www.tate.org.uk>)



(그림 7) Dante Gabriel  
Rossetti, Lady Lilith, 1868  
(<http://www.metmuseum.or>)

로제티는 그림에서 뿐만 아니라 <레이디 릴리트>와 함께 진열하였던 소넷(Sonnet)<sup>21</sup>인 <육체의 미(Body' s Beauty)><sup>22</sup>를 통해 릴리트의 사악하고 신비스러운 모습을 묘사하여 그 이미지를 극대화 시켰다<sup>23</sup>.

「아담의 첫 아내, 릴리트여

(아담이 이브를 선사 받기 전에 먼저 사랑했던 마녀여)

그녀의 달콤한 혀는 뱀보다 먼저 거짓을 말할 수 있었고

그녀의 매력적인 머리카락은 최초의 금발이었다네.

지구가 늙어가는 동안에도 그녀는 여전히 젊은 채로 앉아

<sup>21)</sup> 14행의 짧은 시로 이루어진 서양 시가. 각 행을 10 음절로 구성하며, 복잡한 운(韻)과 세련된 기교를 사용한다. 13세기 이탈리아에서 발생하여 단테와 페트라르카에 의해 완성되었으며, 셰익스피어·밀턴·스펜서 등의 작품이 유명하다

<sup>22)</sup> 1868년 그림 <Lady Lilith>과 함께<Lilith>란 제목으로 쓰여졌으나, 1881년 다른 작품과 함께 시집으로 묶어지면서 제목이 <Body' s Beauty>로 바뀌었다.

<sup>23)</sup> <http://feminism.eserver.org/theory/papers/lilith/bodybeau.html>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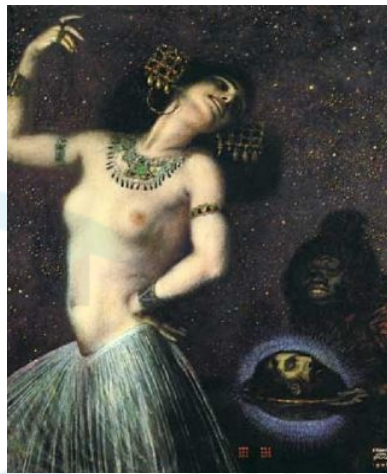
신비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눈부신 머리카락을 땀고 있네  
 남자의 가슴과 육체, 생명을 사로잡을 때까지  
 장미와 양귀비는 그녀의 꽃  
 오 릴리트여! 그를 찾아내지 못한 곳에서  
 누구에게 그대의 향기를 내뿜고 키스를 하며  
 달콤한 잠으로 사로잡을 것인가?  
 오! 청년의 눈이 그대의 눈가에 타오를 때, 그대가 건 마술로  
 청년의 곶은 목은 꺾이고  
 그의 심장은 그대의 금발에 감겨버렸네.<sup>24</sup>

프란츠 폰 슈툽(Franz von Stuck)의 <살로메(Salome)><그림 8>는  
 하얗게 치아가 드러나며 자신감 있게 웃는 표정과 푸르스름할 정도로  
 하얗게 드러난 그녀의 육체가 까만 어둠과 대조를 이루면서 강조되어  
 악마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목적을 달성한 후 기뻐하며 춤을 추는 장면을  
 반나체와 허리에서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 보이는 스커트를 입고 화려한  
 액세서리를 착용한 유혹적이고 사악한 살로메를 표현하였다. 또한 검은  
 얼굴과 굽을 등을 가진 야수로 그려진 요한의 머리를 가져온 심부름꾼은  
 살로메와 비교되면서 살로메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함과 동시에 어둠,  
 죽음, 파멸의 살로메의 팜프파탈적 이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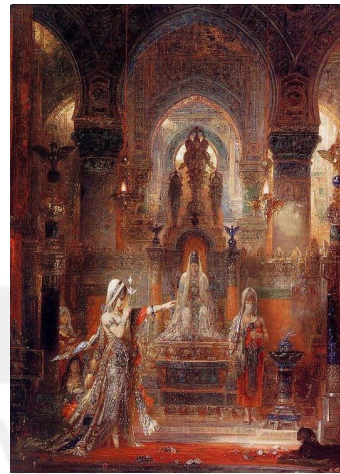
1950년대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한 프랑스 상징주의의 대표적 작가

<sup>24)</sup> 임현주 (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팜프파탈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 논문, p.109. 재인용.

구스타브 모로(Gustave Moreau)는 주관적 관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신화를 재해석하는데 주력했다. 그는 살로메를 자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신비스러우면서 치명적인 매력의 여인으로 묘사하였다. 특히 <헤로데 앞에서 춤을 추는 살로메(Salome dancing before Herod)><그림 9>는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의 희곡 <살로메>에 나오는 일곱 개 베일을 하나씩 벗으면서 춤을 추는 살로메를 관능적으로 그렸다. 이국적이면서 어두운 공간에서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살로메가 요사스럽게 춤을 추는 모습은 20세기의 스트립 쇼를 연상시키며 남성의 욕망을 자극한다.



(그림 8) Franz von Stuck,  
Salome, 1906  
(<http://cgfa.sunsite.dk>)



(그림 9) Gustave Moreau, Salome  
dancing before Herod, 1876  
(<http://cgfa.sunsite.dk>)

또 다른 작품으로는 1887년 존 콜리어(John Collier)가 키츠의 시 <라미아(Lamia)>에서 영감을 받아 그린 <릴리트(Lilith)><그림 10>가 있다. 별거벗은 릴리트를 긴 웨이브 머리를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채 구렁이를 몸에 감고 황홀경에 빠져있는 모습으로 그렸는데, 매혹적인 누드와 화려하게 보이지만 사탄의 상징인 뱀을 함께 그려 여성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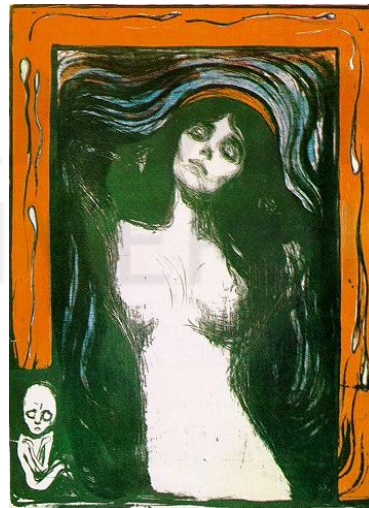
육체적 갈망과 징그러운 뱀과 성애를 즐기는 음탕한 모습으로부터 거부의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회화에서 가장 전형적인 팜프파탈 작품으로 꼽히는 에드바르트 뭉크(Edvard Munch)의 <마돈나(Madonna)><그림 11>는 성모 마리아를 머리를 풀어헤치고 요염한 자세를 취하는 풍만한 나체로 그려 관능적인 여성으로 표현하였다. 짙은 색의 긴 머리카락으로 화면을 채워 파괴적인 힘을 표현하고 소용돌이 치는 배경으로 불안감을 표현하였다. 특히 왼쪽 아래에 빼만 남은 태아를 그려 탄생과 함께 죽음, 공포에 대한 이미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뭉크는 여성을 임신과 출산이라는 행위를 통한 창조자이지만 결국 남성을 위협에 빠뜨리는 죽음의 존재<sup>25</sup>로 보았고, 많은 작품에서 여성의 황홀경에 빠진 순간을 그렸다.



(그림 10) John Collier,  
Lilith, 1887

(<http://www.allposter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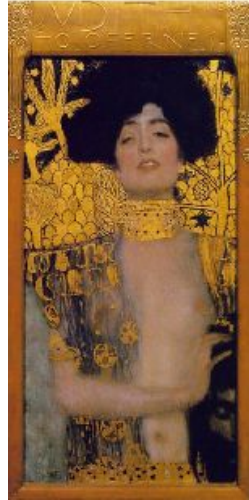
(그림 11) Edvard Munch,  
Madonna, 1895-1902

(<http://www.humanitiesweb.org>)

<sup>25)</sup> 이은수 (1995), 「에드바르트 뭉크(Edvard Munch)의 <사랑> 연작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 논문, p49.

20세기 상징주의 미술의 중심이었던 구스타브 클림트(Gustave Klimt)는 신화와 전설의 여성을 자신의 스타일로 해석하여 표현하였다. 특히 세기말 팜프파탈의 대표적 유형인 <구약성서>의 외경 <유딧서>에 등장하는 인물인 유딧(Judith)에게 애착을 보였다. 유딧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요충지 베툴리아를 침략해 남자들을 죽인 후 여자들을 겁탈하고 약탈을 일삼았던 홀로페르네스(Holofernes)를 유혹한 후 꿩아떨어진 그의 목을 칼로 베었다. 유딧으로 인해 이스라엘 군은 승리를 거두었고 그는 영웅이 되었는데, 클림트는 유딧의 영웅적인 모습보다 남자를 유혹하고 살해한 점을 주로 표현하였다. 주제는 성서에서 빌려왔지만 요부형의 새로운 유딧을 창조하였다.

<유딧 I (Judith I: Judith with the head of Holofernes)><그림 12>에서 유딧은 금색의 무늬가 있는 반투명의 속이 비치고 하늘하늘한 옷을 풀어헤쳐 가슴을 드러낸 채, 부풀어진 헤어스타일을 하고 눈썹은 검게 그렸으며 볼티치를 강하게 넣은 채 눈은 풀려있고 입술은 반쯤 벌어져 있어, 성녀도 영웅도 아닌 관능적인 모습으로 죽은 남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다 죽은 적장의 머리를 애무하는 듯한 손가락으로 기괴한 분위기를 나타내었다. 또한 8년 후 제작한 <유딧 II (Judith II)><그림 13>에서는 반라의 여자가 남자의 머리카락을 잔인하게 움켜쥐고 있는, 더욱 위협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두 작품 모두 유딧의 육체를 남자를 살해하는 흥기로 표현하였다.



(그림 12) Gustave Klimt, Judith I, 1901-1902  
(<http://cgfa.sunsite.dk>)

(그림 13) Gustave Klimt, Judith II, 1907-1909  
(<http://cgfa.sunsite.dk>)

1920년대가 지나면서 문학에서는 하드보일드(Hard-Boiled) 소설이 유행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1929-1939년 무렵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경제대공황으로 세계는 긴 경기침체를 겪었고, 노동자 대부분이 실직하면서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고, 국가를 살리기 위해 개인은 희생하는 전체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폭력적인 테마나 사건을 무감정의 냉혹한 자세로 또는 도덕적 판단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비개인적인 시점에서 묘사하는 사실주의적 기법인 하드보일드 소설이 탄생하게 되었다. 실직으로 무력해진 가장으로서 남성들은 무력감을 잊기 위해 남성다운 힘의 하드보일드 주인공에 열광하였다. 하드보일드는 폭력과 성적인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어두운 도시를 배경으로 탐정이 범죄를 해결해 나가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탐정이 잡아야 할 악당과



그를 유혹하는 팜프파탈 이미지의 여성이 반드시 등장하였다.

초기의 하드보일드 소설은 펄프 마켓(Pulp Market)<sup>26</sup>에 투고하는 싸구려 탐정소설로 인식되었지만, 1929년 사립탐정이었던 데셀 해밋(Dashiell Hammett)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쓴 미스터리 <플라이 페이퍼(Fly Paper)>를 발표한 이후 문학의 한 장르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그가 쓴 하드보일드 소설의 대표 작품 중 영화로 제작되기도 한 1930년작 <The Maltese Falcon(말타의 매)>에서는 골동품인 말타의 매를 둘러싼 악당과 탐정, 그리고 팜프파탈인 윈덜리 부인(Mrs. Wonderly)이 등장한다. 윈덜리 부인이 탐정 사무실에 동생 찾기를 의뢰 하면서 시작되는 이 소설에서 탐정 샘 스페이드(Sam Spade)는 매혹적인 여인 윈덜리 부인과 사랑에 빠지고, 그녀 주위에서 계속 살인사건이 일어났음을 알게 된다. 수사 중 말타의 매라는 보물을 알게 되고, 그것을 둘러싼 사투가 벌어지지만 본명이 브리지드(Brigid)인 윈덜리 부인에게 빠진 샘은 판단력을 상실하고 사건에 휘말린다. 결국 그녀가 모든 사건의 배후였음이 탄로나고, 최후를 맞이하게 되며 끝이 난다.

1955년 미국으로 이주한 러시아인 소설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Vladimir Nabokov)의 소설 <로리타(Lolita)>에서도 역시 팜프파탈이 등장한다. 어린 소녀에게 품는 비정상적인 성욕을 가리키는 ‘로리타 콤플렉스(Lolita Complex)’의 이름이 유래된 이 소설이 이전의 팜프파탈이 등장한 작품과 다른 점은 주인공 로리타가 성인 여성이 아닌 어린 여자 아이라는 점이다. 소설은 소녀들에게 애착을 가진 험버트

---

<sup>26)</sup> 한번 읽고 버리는 잡지류

험버트(Humbert Humbert)가 자신의 의붓딸인 12살의 로리타(Lolita)를 연인으로 만들고, 결국 살인죄로 판결을 기다리며 감옥에서 고백을 하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어린 시절의 연인 애너벨 라이(Annabel Leigh)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과 이혼의 후유증으로 어린 여자 아이와의 열애에 사로잡힌 험버트는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샬럿 헤이즈(Charlotte Haze) 부인의 딸 로리타에게 사랑을 느낀다. 그는 로리타에게 접근하기 위해 헤이즈 부인과 결혼하고, 그의 일기장을 본 헤이즈 부인은 이 일과 관련된 편지를 보내러 뛰쳐나오다가 차에 치여 즉사하고 만다. 의붓딸과 둘만 남겨진 후 그는 로리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겁탈하지만, 그녀가 이미 순결을 잃은 아이였음을 알게 된다. 이후로 험버트는 로리타에게 옷과 과자 등을 사주며 사랑을 퍼붓지만, 또 다른 중년의 남성이 그녀를 유혹해 함께 달아나버린다. 몇 년 후, 그녀가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허름한 동네에서 불구자가 된 군인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험버트는 돌아와달라고 애원하나 거절당하고, 로리타를 유혹한 후 결국 버린 중년 남자를 찾아 살해하고 체포된다.

소설은 로리타를 어린 아이지만 의붓 아버지를 유혹하는 여성이자 성적 피해자로 그리고, 그녀에 대한 집착으로 험버트가 파멸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여, 이전의 팜프파탈과 다른 형태의 여성으로 그렸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19세기 이후의 문학과 회화에 나타난 팜프파탈은 이전 여성이 죽음과 공포를 중심으로 표현된 것과 다르게 성적 매력과 남성을 유혹하고 파멸시키는 점이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서양 영화에 표현된 팜프파탈 이미지

19세기말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사진기, 영사기가 개발되고 1895년 12월 28일 프랑스의 그랑카페에서 ‘열차의 도착’이라는 작품을 루미에르(Lumiere) 형제가 상영함으로써 영화가 시작되었다. 20세기에 이르러 시작된 영화는 다른 예술에 비해 역사는 짧지만 그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하고, 문화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대중매체이다.

영화에서 팜프파탈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표현되기 시작한 것은 1940년 ‘필름 느와르(Film Noir)’ 시대부터였다. 필름 느와르 시대에 접어들면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시각에서의 종속적인 여성이 아닌, 독립적인 이미지의 팜프파탈 여성형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도시에 나타난 신여성들의 등장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가진 경제력 때문에 생긴 남성들의 성 정체성 혼란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관객은 영화를 통해 대리만족을 하므로, 영화는 그 시대를 대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필름 느와르에 나타난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상이 바로 새로운 여성상의 투영이었다.

필름 느와르라는 명칭은 1946년 전후 프랑스 잡지인 <씨네아스트(Cinéaste)>의 비평가 니노 프랭크(Nino Frank)가 이전의 할리우드 영화와 다른 분위기의 영화를 이전 영화와 비교하기 위해 ‘필름 느와르’, 즉 ‘검은 영화’ 라고 붙이면서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필름 느와르에 관한 비평은 프랑스에서 논의되다가 1960년대 후반 ‘까이에 드 시네마(Cahiers du Cinéma)’ 를 중심으로 미국 영화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제기된 이후에 영미권에서 담론이 형성되면서 느와르 영화에 대한 정의와 비평에 대한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sup>27</sup> 이들이 필름 느와르라고 명명한 영화는 2차 대전 후 프랑스에 소개되기 시작했던 일련의 할리우드 영화들 중 주로 적은 예산으로 제작된 'B급 영화'이면서 어두운 분위기의 범죄, 스릴러물들이었다<sup>28</sup>. 전쟁으로 인해 1940년대 이후의 미국영화를 접하지 못한 프랑스 비평가들이 1946년부터 다시 미국영화를 접하게 되면서 이전과 다른 어두운 면이 부각된 영화를 지칭한 용어였다. '느와르 (Noir)' 는 불어로 '검다' 는 뜻으로,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탐정 소설 느와르 시리즈에서 용어를 따오게 되었고, 필름 느와르라 하면 범죄와 폭력 세계를 배경으로 한 탐욕과 성욕 등에 의해 타락한 사회의 부정적 모습을 다룬 영화를 뜻한다. 필름 느와르는 세계대전기간 동안 전쟁에 나갔던 남성들의 부재로, 사회 활동을 시작하게 된 여성을 독립적이고 강한 모습으로 그렸다.

이와 같이 영화에 표현된 팜프파탈은 1940년대 필름 느와르를 중심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팜프파탈의 이미지가 나타나게 된 시기, 필름 느와르 시기, 그리고 그 이후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특히 자본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영화의 작품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므로, 할리우드 작품을 중심으로 각 시기별로 대표적으로 팜프파탈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sup>27)</sup> 장윤정 (2004), 「모더니즘의 알레고리와 비전으로서의 필름느와르 : 팜프파탈,검열,하드보일드의 중층 결정으로서의 장르적 재구성에 대한 연구」,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박사과정 논문 pp.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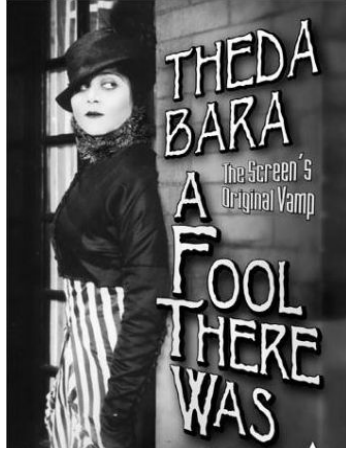
<sup>28)</sup> 네이버 용어사전 '필름 느와르' 참조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5&docId=1599>)

## 1) 서양 영화에 나타나기 시작한 팜프파탈

필름 느와르 이전의 영화에서는 현재의 팜프파탈 이미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이전의 보수적 사회에서의 여성상과 다른 여성의 이미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먼저 그 대표적인 이미지로, 무성영화시대의 뱀프(Vamp)를 들 수 있다. Vamp는 Vampire의 약자로, 아름다운 여성은 아니었지만 남성을 파멸로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다. 뱀프는 1911년 덴마크 영화 <흡혈귀의 춤(Vampirish Dance)>이 개봉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요부 이미지의 뱀프는 1897년 루디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이 쓴 시 <뱀파이어(The Vampire)>를 영화화 한, 프랭크 파워(Frank Powell) 감독의 1915년 영화 ‘광대의 천국(A Fool There Was)’ <사진 14>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주인공이었던 테다 바라(Theda Bara)는 남자를 유혹하여 파멸시킨 후 그 재산으로 살아가는 매혹적이며 부도덕한 여성상인 뱀파이어를 연기하였는데, 이 시대의 뱀프들은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유일한 신분상승의 도구로 이용하여 재력과 권력을 가진 남성을 유혹하였다. 영화에서 표현된 뱀프는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헝클어진 웨이브 형태의 긴 머리에 눈썹은 검정은 펜슬로 가늘게 일자형으로 그리고 눈 주위는 검정색으로 넓은 부위에 짙게 칠하여 어두운 느낌을 주었다. 의상에 있어서는 해방감을 나타내는 듯한 드레이프성이 강한 흘러내리는 형태의 자연스러운 의상을 착용하였고<그림 15>, 이러한 메이크업과 의상 스타일은 대중스타의

스타일로서 당시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을 선도하였다. 뱀프 이미지의 등장으로 영화는 이전 시대의 주된 순종적인 여성상에서 탈피하여 팜프파탈 이미지로 변화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림 14) 영화 ‘A Fool There Was’의 포스터  
(www.imdb.com)



(그림 15) 영화 ‘A Fool There Was’의 Theda Bara  
(www.imdb.com)

영화에서 여성의 이미지는 더욱 발전하여 자유로운 신여성의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1925년 달러스 피츠제럴드(Dallas Fitzgerald) 감독의 ‘변덕스런 여인(My Lady of Whims)’ <그림 16>에서 주연을 맡은 클라라 보우(Clara Bow)가 대표적이다. 여성도 스스로의 욕구에 의해 남성을 유혹하고 자유로운 이성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또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날 수도 있다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 Clara Bow 식의 영화들은,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의 물결 속에서 남성들이 가졌던 가족의 붕괴, 혼외 정사의 두려움을 반영하는 영화였다.<sup>29)</sup>

영화에서 나타난 클라라의 스타일은 창백한 얼굴에 눈썹은 얇게 한

<sup>29)</sup> 임현주, op,cit., p.56.

줄로 끝은 살짝 쳐지게끔 초승달을 그리듯이 그렸고, 눈은 1910년대와 마찬가지로 눈 주위에 검정색으로 음영을 넣듯 어둡게 칠하고, 빨간 립스틱을 발랐다. 헤어스타일은 형클어진 짧은 웨이브 머리였는데, 1910년대에 비해 자연스러움이 다시 사라지고 인위적으로 꾸민 듯한 인상을 주었고, 의상도 전체적으로 몸에 붙는 스타일이었다.<그림 17>



(그림 16) 영화 ‘My lady of Whims’의 Clara bow1  
(www.clarabow.net)



(그림 17) 영화 ‘My lady of Whims’의 Clara bow2  
(www.clarabow.net)

이국적인 미를 가지고 있었던 스웨덴 출신의 그레타 가르보(Greta Garbo)는 1926년 ‘요부(The Temptress)’ <그림 18>에서 신비로우면서 위험한 요부의 연기를 펼쳤다. 1926년 ‘육체와 악마(Flesh and the Devil)’ <그림 19>에서도 가르보는 신비로운 이미지로 남성을 유혹하지만 결국 악마의 정체가 폭로되어 자멸하는 미모의 귀부인으로 등장하여 고전적이면서도 매혹적인 팜프파탈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영화에서 보여진 그레타 가르보의 성숙하고 신비해 보이는 스타일은

1930년대 성인풍의 여성적인 모드의 유행을 선도하였다. 특히 눈썹이 특징이었는데, 눈썹을 뽑아 가늘고 둥근 아치형으로 그리고 눈썹뼈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눈은 움푹 꺼져 보이게끔 하였다. 점차 발달하는 화장품 산업에 힘입어 인조 눈썹과 마스카라를 사용하였고, 아랫입술을 도톰하고 선명하게 그렸으며 반짝이는 검붉은 색의 립스틱을 발랐다. 헤어는 어깨길이의 금발로 우아한 웨이브기가 있는 옆가르마 형태였다.

의상도 여성미가 느껴지는 몸에 붙는 긴 드레스와 화려한 패턴, 모피나 긴 스카프를 액세서리로 사용하여 화려하게 연출하였다.



(그림 18)영화 ‘The Temptress’의 Greta Garbo  
(www.imdb.com)



(그림 19)영화 ‘Flesh And the Devil’의 Greta Garbo  
(www.imdb.com)

또 다른 배우 마를린 디트리히(Marlene Dietrich)는 독일 출신으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패션인 바지를 선보이며 모호한 성적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고, 신비스러우면서 차가운 표정이 더해져 남성들의 성적 판타지를 자극하였다. 독일에서 활동하던 그녀는 외인부대 상대의 창녀로



출연한 <모로코(Morocco, 1930)><그림 20>로 할리우드 영화계에 데뷔하였고, 늙은 교수를 유혹하여 과멸에 이르게 하는 술집 가수 역을 했던 <푸른 천사(The Blue Angel, 1930)><그림 21>로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가 되었다. 다리를 벌린 채 의자에 앉아 냉혹한 눈빛을 던진 장면으로 독특한 카리스마의 매혹적인 팜프파탈의 모습으로 각인되었다.

그레타 가르보와 함께 디트리히의 외적 이미지는 클라라 보우에 비해 여성스러운 스타일의 팜프파탈이었다.<sup>30</sup> 메이크업은 같은 시기에 활동한 그레타 가르보와 유사했는데, 가는 아치형의 눈썹을 그렸고, 헤어스타일은 가르보보다 짧은 길이의 웨이브 형태였다. 의상은 몸매가 드러나면서도 남장 차림에 가까운 짧은 치마나 바지를 착용하였고, 증절모 형태의 햇(Hat)과 나비넥타이를 매어 매니쉬(Manish)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림 20)영화 ‘Morocco’의  
Marlene Dietrich  
(www.imdb.com)



(그림 21)영화 ‘The Blue Angel’의  
Marlene Dietrich  
(www.imdb.com)

<sup>30)</sup> 윤보원(2005), 「영화에 나타난 팜프파탈 이미지와 스타일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57.

할리우드 2류 배우였던 루이스 브룩스(Louise Brooks)는 독일 영화의 거장 파브스트(G.W.Pabst) 감독이 1929년 프란츠 베네킨트(Frank Wedekind)의 희곡 두 편을 각색해 만든 무성 멜로 영화 ‘판도라의 상자(Pandora’s Box)’ <그림 22>에 출연해 최고의 팜프파탈 룰루(Lulu)를 연기했다. 당시 매춘이 성행하던 베를린(Berlin)이 배경인 영화에서 신문사 사장 쉰 박사(Dr. Schön)의 정부 룰루는 박사의 약혼을 깨뜨리고 결혼하게 되지만, 박사 아들과의 관계가 폭로되고, 격분한 박사가 동반자살을 원하지만 박사를 쏜 후 도망가는, 결국 남성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모던한 여성이었다. 영화에서 보여준 뇌쇄적 눈빛과 천진하면서 음란한 행동으로 그녀는 섹시 아이콘이 되었다. 섹시한 컨셉을 나타내기 위해 가슴이 파이고 허리가 잘록한 원피스를 주로 입었다. 스모키 메이크업과 빨간 립스틱이 앞이 뽀족하게 빠지는 짧은 검정 머리와 어울려 강하면서 섹시한 이미지로 보여졌다.<그림 23>



(그림 22)영화 ‘Pandora’ s Box’의 포스터  
(<http://www.amazon.com>)



(그림 23)영화 ‘Pandora’ s Box’의 Louise Brooks  
(<http://www.dvdbeaver.com>)

이처럼 1920년대 초반의 영화에서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는 계획적이지는 않지만 묘한 매력으로 남성을 파멸하게끔 만드는 존재였다. 특히 무성영화 시기에는 소리 없이 강하고 사악한 시각적 이미지만으로 뱀프의 신비로운 힘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배우의 의상과 메이크업, 그리고 표정 연기는 매우 중요하였다. 이후 1940년대 느와르 시대로 넘어가기 이전의 여성이미지는, 뱀프에서 팜프파탈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유로운 신여성 이미지의 클라라 보우와 고전적이고 관능적 매력의 그레타 가르보, 그리고 바지 착용으로 중성의 이미지를 가짐으로써 남성의 판타지를 자극한 마를린 디트리히, 섹시하고 음란한 눈빛 연기를 한 루이스 브룩스에 의해 느와르 시대의 팜프파탈 이미지의 토대를 만들게 되었다.

## 2) 필름 느와르 시대의 팜프파탈 (1940~70년대 이전)

영화에서 팜프파탈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것은 1940년대 미국 느와르 영화에서였다. 필름 느와르는 타락한 도시를 배경으로 폭력과 범죄,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주로 다루었다. 1930년대를 중심으로 한 경제대공황기에 어두웠던 현실에 지쳐있던 사람들이 남성적 힘이 넘치는 하드보일드 소설에 열광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원작으로 한 영화에서는 폭력적이고 범죄를 일으키는 악당, 그리고 범죄를 해결하는 탐정과 그들을 유혹하는 팜프파탈형 여성이 항상 등장하였다.

또한 2차 대전으로 남성들이 전쟁에 참여하며 생긴 빈 일자리를

대신하면서 남성의 보호 없이도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어, 남성들은 성역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의 수단을 찾았는데, 필름 느와르에서 보여주는 요부가 바로 그것이었다. 194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등장한 느와르 영화는 남성 감독들이 영화를 통해 가정에 머물기를 거부하는 여성에 대해 적개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써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여성 또는 여성 자체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남성을 이용하는 위험한 존재로 묘사하였다.

돈을 위해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을 하며 남성을 유혹하는 필름 느와르의 전형적인 여성상인 팜프파탈은 1941년 대철 해밋(Samuel Dashiell Hammett)의 소설을 영화화한 존 휴스턴(John Marcellus Huston) 감독의 데뷔작 ‘말타의 매(The Maltese Falcon)’에서 먼저 찾아 볼 수 있다. 말타의 매라는 보물을 쟁취하기 위한 여러 인물들의 탐욕을 그리고 있는 이 영화에서 여주인공인 윈덜리 부인(Mrs. Wonderly)은 주인공 샘(Sam Spade)이 운영하는 탐정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면서 영화는 시작하게 된다. 필름 느와르의 전형적인 주인공 샘은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주변 인물들의 죽음만 계속되고, 샘은 본명이 브리지드(Brigid O'Shaughnessy)인 여주인공, 윈덜리 부인에게 매력을 느끼게 된다. 매리 에스터(Marry Astor)가 연기한 브리지드는 매력적인 여인이지만 탐욕을 채우기 위해 거짓말로 주위 사람들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팜프파탈이다. 계속된 거짓말과 유혹적인 눈빛은 샘의 판단력에 혼돈을 주고, 브리지드는 목표를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 스스로 역시 파멸로 이끌게 된다.

주인공 브리지드는 모던하고 세련된 도시적인 여인으로 등장한다. 옆가르마를 탄 굵은 웨이브로 릿지(Ridge)를 살린 스타일의 짧은 머리를 하고, 아이라인과 마스크라로 눈매를 강조하였으며, 주로 재킷과 치마로 이루어진 어두운 색의 정장 속에 큰 러플이 들어간 블라우스를 입거나 긴 코트나 모피 코트를 덧입었다. 가슴에 크기가 큰 브로치를 달고, 귀걸이도 착용하였으며 모자나 베일을 쓰기도 하였다.<그림 24>

1944 년 바바라 스탠위크(Barbara Stanwyck) 주연, 빌리 와일더(Billie Wilder) 감독의 ‘이중배상(Double Idemnity)’에서 바바라가 연기한 여주인공 필리스 디트리히슨(Phyllis Dietrichson)은 남편의 보험 계약을 갱신하러 온 보험회사 직원인 월터(Walter Neff)를 유혹해 남편을 살해하게 하고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을 세운다. 필리스가 남편의 보험에 대해 처음 의뢰할 때 월터는 그 의도를 알았으나, 필리스가 보호본능을 일으키며 치명적인 아름다움으로 유혹하고, 결국 월터는 필리스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살해 계획에 동참하게 된다. 디트리히슨의 죽음에 대해 수상히 여기던 보험회사는 그가 살해당했음을 알게되고, 일이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던 월터는 필리스에게 다른 남자가 있음을 알게 되면서 배신당했음을 깨닫고 필리스마저 살해하게 되면서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된다. 필리스는 꾸미지 않은 것 같은 청순한 메이크업을 한 순진한 표정의 연약하면서 아름다운 금발의 여성으로 보호본능을 일으키며 남성을 유혹하지만, 외모와는 반대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남편을 죽이는 음모를 꾸미고, 남성을 연인으로 만들어 이용하고 파멸에 빠뜨리는 사악함을 가진 인물로 그려진다.

바바라 스탠위크는 무릎 길이의 원피스와 레이스, 러플이 있거나 퍼프 소매의 풍성한 블라우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었다. 메이크업은 눈썹산이 있는 진한 눈썹에 아이라인을 길게 빼고, 입술을 빨간색으로 도톰하게 그려 매혹적으로 보이게 하였다. 또한 어깨길이의 큰 웨이브가 들어간 금발머리에 앞머리를 둥글게 말은 헤어스타일을 선보였다.<그림 25>



(그림 24) 영화 ‘The Maltese Falcon’의 Marry Astor  
(www.imdb.com)



(그림 25) 영화 ‘Double Indemnity’의 Barbara Stanwyck  
(www.imdb.com)

필름 느와르의 고전으로 평가 받는 찰스 비더(Charles Vidor) 감독의 1946 년작 영화 ‘길다(Gilda)’에서 주인공 길다는 전형적인 냉혹한 이미지의 팜프파탈이다. 길다 역의 리타 헤이워드(Rita Hayworth)는 총 15 회의 아카데미 의상상 후보와 1 회 수상을 한 당대 최고의 글래머 스타들의 영화 의상 담당 장 루이(Jean Louis)가 디자인한 소매가 없는 드레스를 입고 담배를 피는 유혹적인 모습으로 화제가 되었었다.

아르헨티나 도박장에서 돈을 딴 조니(Johnny Farrell)는 거리에서 습격을 받게 되지만 카지노 소유주 먼슨(Ballin Mundson)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의 심복이 된다. 조니는 먼슨의 아내 길다를 소개받게 되는데, 조니의 옛 연인이었던 길다와 조니는 서로에게 다시 이끌리게 되고, 이에 먼슨은 질투와 증오를 가지게 된다. 먼슨이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된 후 조니와 길다는 결혼하지만, 조니가 기분 내킬때마다 다른 남자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길다의 남성편력에 대해 의심하게 되면서 사이가 나빠진다. 죽은 줄 알았던 먼슨이 살아 돌아오게 되면서, 조니와 먼슨은 길다를 두고 결투를 하게 되면서 두 남자는 파멸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길다역의 리타 헤이워드(리타 헤이워드)는 빨간 립스틱으로 도발적이면서 육감적인 도톰한 입술을 그렸고, 길고 굽실거리는 헤어스타일로 글래머러스(glamorous)한 에로틱함을 더해주었다.<그림 26> 공단으로 된 드레스를 입고 역시 공단으로 만들거나 모피를 이용한 스카프, 장갑 등의 소품을 착용하여 화려하게 치장하였고, 담배를 당당하게 피는 모습으로 남성의 성욕을 더욱 자극하는 관능적인 팜프파탈역을 소화하였다.<그림 27>



(그림 26) 영화 'Gilda'의  
Rita Hayworth 1  
(www.imdb.com)



(그림 27) 영화 'Gilda'의  
Rita Hayworth 2  
(VOD 직접 캡처)

이처럼 1940년대 필름 느와르에서 시작된 팜프파탈은 대부분 의도적으로 남성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교활한 여성으로 그려지고, 때로는 연약하지만 때로는 강한 신비스러우면서 매력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 느와르 영화에서 팜프파탈은 주로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하이힐을 신은 여성으로 그려졌는데, 남성들은 여성의 다리를 보면서 몰래 훑쳐보는 관음성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또한 자유스러운 여성이 당당히 담배를 피우고, 파티에서나 입거나 고급 창녀가 입는 여성미가 넘치는 이브닝 드레스를 입어 세련된 이미지를 주면서 동시에 타락한 이미지를 주기도 하였는데, 감독들은 그러한 소품들을 시각적인 효과로 이용하여 위험한 팜프파탈임을 암시하였다.

### 3) 현대 서양 영화에 나타난 팜프파탈 (1970년대 이후)

1950년대 이후 세계 경제가 호황을 맞게 되면서 우울하고 폭력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는 필름 느와르와 팜프파탈 여인에 대한 영화는 점차 사라졌다. 그러나 1970년대 이르러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과 닉슨 시대의 불안, 여성 운동의 재확산과 핵에 대한 불안 등 불안한 사회적 상황에서 필름 느와르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베트남전으로 인한 미국의 패배의식 등으로 충격에 빠진 시민들은 과거의 강한 미국에 대한 향수를 가지게 되었고, 헐리우드 영화는 강한 남성과 미국적 가치를 다시 찾기 위해 선한 여성과 팜프파탈 여성의 대립을 다시 그리기 시작하였다. 보수적 시각에서 사회에서 성공하고 권리를 획득한 여성들은 팜프파탈



이미지로 다시 그려지기 시작했고, 필름 느와르에서보다 더욱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필름느와르의 거짓말하고 자신을 숨기며 유혹했던 팜프 파탈과 다르 게 1970년대 나타난 팜프파탈은 남성과 대결하고 공격적으로 경쟁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여성이 남성과 사회에 종속적이었던 것에 반해, 1970년대 여성들의 인권은 더욱 보장 되었으며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시대적 분위기가 반영 되었다. 거짓말로 속이면서 남성을 이용할 필요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위해 남성을 제거하는 강한 여성이 된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를 위해 때로는 공격성, 카리스마 등의 남성적 성격과 이미지가 강조되기도 하였다.

1944년작 ‘이중배상(Double Idemnity)’ 을 리메이크한 ‘보디히트 (Body Heat, 1981년작)’ 은 원작과 전체적인 줄거리는 유사하나 여주인공의 성격이나 행동에서 그 차이가 있다. 여주인공 매티 (Matty Walker)는 변호사인 네드(Ned Racine)을 유혹하여 남편을 죽이고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 모든 죄는 러신이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게 되고, 원작과 다르게 매티는 죽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모두 성공한 후 멋진 휴양지에서 휴식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끝이 난다. 철저히 살해 계획을 세우고 남성을 유혹하고 그를 이용하여 자신은 성공하지만 남성을 파멸에 빠뜨리는 나쁜 여자, 즉 과거의 여성에 비해 더욱 매혹적이고 당당한 팜프파탈인 것이다.

이렇게 ‘보디히트’ 는 40년대 느와르 영화 ‘이중배상’ 의 줄거리에 노골적인 장면을 첨가하여 80년대 스타일로 재탄생한 현대화 된 필름

느와르였는데, 이러한 새로운 느와르 영화에 대해 알렌 실버(Alain Silver)와 엘리자베스 워드(Elizabeth Worth)는 1984년 『필름 느와르(Film Noir: An Encyclopedia Reference to the American Style)』란 책에서 70년대 이후의 새로운 느와르를 ‘네오 느와르(Neo Noir)’라는 신조어로 쓰기도 하였다.

배우 캐서린 터너(Kathleen Turner)는 작은 퍼머넌트 웨이브가 들어간 굽실거리는 긴 머리와 고풍적인 가늘고 어두운 아이 메이크업으로 이중배상의 바바라 스탠위크와 다른 도발적인 스타일로 여주인공 매티를 표현하였다.<그림 28>

1987년 애드리안 라인(Adrian Lyne) 감독의 스릴러 영화 ‘위험한 정사(Fatal Attraction)’에서도 팜프파탈이 등장한다. 아내와 딸을 둔 평범한 가장이자 출판사 담당 변호사인 댄(Dan Gallagher)는 파티에서 우연히 매력적인 커리어우먼인 부편집장 알렉스(Alex Forrest)를 만나고 그녀에게 이끌리게 된다. 며칠 후 회의에서 다시 만난 그들은, 댄의 아내와 딸이 친정에 가 집을 비운 사이 관계를 맺게 되고, 그 후부터 알렉스는 임신을 빌미로 자해를 하고, 딸을 유괴하는 등 위협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한다. 알렉스는 마지막에 댄의 가정에 침입까지 하여, 부인과 싸움을 벌이게 되고 광적인 집착은 결국 그녀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몰게 된다는 내용으로, 여주인공 알렉스는 가정파괴를 하게 되는 광적인 악녀로 그려지고 있다. 알렉스 역을 맡은 글렌 클로즈(Glenn Close)는 헝클어진 파마머리에 섬뜩한 표정, 그리고 식칼을 들고 위협하는 장면 등으로 악녀의 이미지가 잘 그려냈다. 메이크업 역시 눈

주위에 검정 아이라인을 진하게 그린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강하게 표현되었다. 의상 역시 가슴이 깊이 파인 어깨가 큰 정장이나, 레이스로 된 속옷 위에 잠옷을 걸친 차림으로 등장하였다.<그림 29>



(그림 28)영화 ‘Body Heat’의 Kathleen Turner (비디오 직접 캡처) (그림 29)영화 ‘Fatal Attraction’의 Glenn Close (VOD 직접 캡처)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영화에서 여성의 이미지는 더욱 공격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 1990년대 대표적 팜프파탈 영화로는 1992년 폴 버호벤(Paul Verhoeven) 감독의 ‘원초적 본능(Basic Instinct)’이 있다. 샤론 스톤(Sharon Stone)이 연기한 캐서린(Catherine Tramell)은 과거의 팜프파탈보다 더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섹슈얼리티(sexuality)를 가진 치명적인 여성이다. 여류추리소설가 캐서린은 살인을 저지르나 처벌받지 않고, 형사 닉(Nick Curran)은 그녀를 의심하지만 그녀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이용당한다. 캐서린은 자신과 섹스한 남성들을 송곳으로 찔러 살해하는 살해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그녀의 매력적인 눈에서는 팜프파탈의 치명적인 매력과 동시에 힘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취조실에서 형사들 앞에서 다리를 꼬는 장면에서는 의상과 메이크업, 표정 모두 섹시하고 매혹적인 스타일로 그려졌다.<그림 30>

속옷을 하지 않은 듯 가슴이 비치게 의상을 입거나, 등이 엉덩이까지 파인 드레스나 짧은 미니원피스를 입었고, 화려한 귀걸이와 목걸이를 착용하였다. 메이크업은 비교적 내추럴했으나 눈썹은 짙고 두꺼운 편이었고, 금발 머리를 자연스럽게 풀어헤쳐 여성미를 보여주거나 올백 스타일로 당당한 커리어우먼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필름 느와르의 부활이라 화제를 일으키며 1990년대 필름 느와르의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고 있는 커티스 헨슨(Curtis Hanson) 감독의 1997년작 ‘L.A. 컨피덴셜(L.A. Confidential)’에서도 미모의 팜프파탈이 등장한다. 마약과 매춘, 범죄가 성행하던 1953년 L.A.을 배경으로 L.A. 최대 범죄조직의 보스 미키 코헨(Mickey Cohen)을 제거하려는 경찰의 작업 중 파헤쳐지는 갱과 경찰 간부와의 유착관계와 그들을 둘러싼 음모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1940년대 필름 느와르에서 사설 탐정이 등장하는 것과 달리, 대규모의 범죄조직이 만연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대도시의 조직적인 경찰이 주인공으로 바뀌었다. 도심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배후에 범죄조직이 있음을 알게 된 경찰 버드(Bud White)는 단독 수사에 들어가게 되고, 현장에서 발견된 희생자와 전날 같이 있었던 린(Lynn Bracken)을 추적하다가 신비스럽고 섹시한 그녀에게 빠져든다.

김 베이싱어(Kim Basinger)가 연기한 린은 웨이브가 있는 긴 금발과

선명한 눈매, 도톰한 붉은 입술을 그리고 가슴이 깊게 파인 새틴 소재의 이브닝 드레스 의상을 입어 매혹적인 외모로 남성을 유혹하는 치명적인 팜프파탈이지만<그림 31>, 과거 필름 느와르와는 다르게 진정한 사랑을 하고, 비극적인 결말 대신 남녀 주인공이 모두 죽음과 파멸을 맞이하지 않고 해피 엔딩(Happy Eending)으로 끝이 난다.



(그림 30) 영화 ‘Basic Instinct’의 Sharon Stone (비디오 직접 캡처)



(그림 31) 영화 ‘L.A. Confidential’의 Kim Basinger (www.imdb.com)

2001년 마이클 크리스토퍼(Michael Cristofer) 감독의 ‘오리지널 썬(Original Sin)’에서 줄리아 러셀(Julia Russell) 역의 안젤리나 줄리(Angelina Jolie)는 섹시한 외모와 전라 연기로 완벽한 팜프파탈을 연기했다. 코넬 울리치(Cornell Woolrich)의 고전 스릴러 ‘어둠 속으로의 왈츠(Waltz Into Darkness, 1947년작)’가 원작인, 19세기 말 쿠바가 배경인 영화에서 커피 회사 주인인 루이스(Luis Antonio Vargas)는 결혼하기 위해 신문에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미국에서 온 줄리아와 결혼한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지만, 어느날 줄리아가 거액을

들고 도망가고, 루이스는 그녀의 남성편력과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중인 범죄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격분한다. 줄리아가 행복한 나날을 보낼 때는 러플이 들어간 청순하고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은은한 브라운의 채도우를 칠한 아이 메이크업으로 표현되었던 반면<그림 32>, 도피한 후부터는 눈 주위를 짙은 브라운 빛이 도는 회색으로 넓게 칠한 스타일의 스모키 메이크업과 노출이 많은 의상으로 의도적으로 바뀌어<그림 33>,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했던 악녀로 그렸다.



(그림 32) 영화 'Original Sin'의 청순한 Angelina Jolie

(<http://www.cinema.com>)



(그림 33) 영화 'Original Sin'의 강한 Angelina Jolie

([www.imdb.com](http://www.imdb.com))

이제까지 서양의 영화를 살펴본 결과, 초기의 영화부터 1970년대까지 팜프파탈은 주로 관능적인 면이 강조되어 화려한 의상과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역시 도시적으로 꾸민 매혹적인 여성으로 그렸다. 그러나 현대의 영화에서 팜프파탈은 꾸미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운 의상과 내추럴한 화장이나 헤어스타일이 등장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IV. 한국 영화에 표현된 팜프파탈 이미지 분석

한국에서는 1903년 6월 활동 사진을 동대문 내 한성전기회사 기계장에서 상영함으로써 최초로 영화가 상영되었다. 왕실이나 외교관을 위주로 활동사진이 상영되고 있었다고는 하나,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은 자료는 황성신문에 광고를 냈던 1903년을 최초의 영화가 상영된 해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 최초로 만들어진 영화는 1919년 10월 27일 김도산 감독의 ‘의리적 구토(義理的 仇討)’로, 단성사의 경영주 박승필의 자본을 받아 제작된 3막 22경의 신극좌<sup>31)</sup>의 작품 중간에 연극의 일부를 야외에서 촬영한 것을 상영한 것이었고, 한강과 거리 모습 등을 극장 안에서 볼 수 있었던 활동 사진의 시초였다. 연쇄극이 아닌 극영화로서 최초의 영화는 1923년에 제작된 ‘월하의 맹서’로 알려져 있다.<sup>32)</sup> 한국 영화는 서양에 비해 약 20년 가까이 뒤쳐진 것이었지만, 한국의 시대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가장 큰 대중문화라 할 수 있다.

한국 영화에서도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국 전쟁 후의 어두운 시대적 배경과 여성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 맞물려 많은 작품에 팜프파탈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한국 영화에 나타난 팜프파탈이 잘 나타난 작품을 중심으로 팜프파탈의 성격과 이미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팜프파탈 캐릭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sup>31)</sup> 김도산이 운영하던 국내 최초의 신파 극단

<sup>32)</sup> [http://www.kmdb.or.kr/2006contents/kfilm\\_kin\\_view.asp?idx=8](http://www.kmdb.or.kr/2006contents/kfilm_kin_view.asp?idx=8)(한국 영화 데이터 베이스) 참조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팜프파탈의 외적 스타일에 대하여 영화 속에서 팜프파탈형으로 변하기 전후의 모습 또는 다른 배역의 인물과 액세서리를 포함한 의상,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보았다.

## 1. 한국 영화에 나타나기 시작한 팜프파탈

한국 최초의 영화는 1919년 시작되었지만, 영화가 산업화되고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 전쟁이 휴전된 1953년 이후에 이르러서였다. 1954년에는 국산 영화에 대한 입장세를 전면 면세 조치하고, 1959년 4월 16일에는 국산 영화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국산 영화 제작자에 외국 영화 수입권을 주는 특별한 정책안을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한국 영화는 제작 편수가 현저히 늘어나게 되었다<sup>33</sup>.

영화 산업이 발달하고,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스타성 있는 배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배우가 입는 의상과 메이크업 스타일이 유행되기 시작하였다. 대중은 점차 배우와 화면을 스토리만큼 중요시하는 수준 높은 관객이 되었고, 의상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은 배우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분위기를 전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영화가 먼저 발달했던 서양의 영화 산업에서도 초기에는 배우가 직접 의상을 만들거나 구했지만, 1920년대 들어 오페라나 무용 회사의 의상실에서 빌려 입거나 Madeleine Vionnet(마들레네 비요네), Jean Patou(장 파두) 등의 꾸뛰르 디자이너를 찾아 옷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sup>33)</sup> 호현찬(2007), 『한국영화 100년』, 문학사상사, p116.



20년대 말부터는 의상의 중요성을 깨달은 스튜디오 대부분이 의상 담당 디자이너, 재단사 등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의상부서를 가지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1956년 영화 ‘단종애사’ 를 시작으로 이해운<sup>34</sup> 여사가 영화 의상 전문 디자이너로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1965년 ‘태조 이성계’ 를 시작으로 송일근<sup>35</sup> 용이 영화에서 분장사로서 활동을 시작하면서<sup>36</sup> 한국 영화에서도 영화 속 주인공을 꾸며주는 캐릭터 이미지에 따른 스타일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팜프파탈은 매혹적이지만 남성에게 위협한 여성이자 장애물로 등장한다. 영화 속에 나타난 팜프파탈은 주로 악하거나 남성을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액세서리를 포함한 의상, 헤어, 메이크업 등 외모에 있어서는 다른 이미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주제곡인 ‘댄서의 순정’ 이 인기를 끌면서 더욱 유명해진 1956년 한형모 감독의 ‘자유부인(自由夫人)’ 은 한국 영화에서 본격적인 팜프파탈의 등장을 알린 작품이다. 자유부인의 원작은 1954년1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서울 신문>에 연재되었던 소설가 정비석의 작품을 영화화 한 것으로 연재 시작부터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작품이다.<sup>37</sup>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대학 교수 장태연의 부인 오선영이

<sup>34)</sup> 이해운 여사 : 1925년생, 1955년 영화 ‘춘향전’ 에 엑스트라로 출연한 것을 계기로 영화계에 발을 들인 후 ‘자유전선’ 등 작품에서 배우로 활동하다 의상을 제작하게 되고, 1956년부터 40여년간 약500편의 영화 의상을 제작

<sup>35)</sup> 송일근 용 : 1923년생, 1959년 ‘고종황제와 의사 안중근’ 에서 단역으로 영화에 데뷔한 후, 1960년대부터 영화 분장 활동

<sup>36)</sup> 한국영상자료원(2006), 『한국영화를 말한다 : 한국영화의 르네상스2』,이채, p.375.

<sup>37)</sup> 김차애(2006), 「한국 영화에 나타난 팜프파탈 이미지 연구」,서강대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pp.63-64.

양품점에 일하고 사회에 눈을 뜨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이다. 선영은 학문에만 몰두하는 남편과의 권태로운 결혼 생활 중 우연히 동창을 만나 명사부인들의 모임인 화교회에 나가게 되고, 화교회 2차 모임인 댄스파티에 참가하게 되면서 춤을 알게 된다. 그러던 중 옆집에 사는 신춘호에게 춤을 배우고 댄스홀에 다니면서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불륜을 저지른다. 이렇게 가정을 지키지 않은 여성은 결국 처벌을 받고, 여성에 대한 규준을 상기시키려는 목적이 있던 초창기 영화에서는 결국 선영이 신춘호에게는 버림 받고, 양품점 사장이자 댄스홀에서 댄스 파트너였던 한사장과는 불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고 결국은 가정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으로 끝을 내게 된다.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교수와 그의 부인의 불륜과 엇갈린 사랑으로 당시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이 영화는 현대적 여성이 되는 것은 곧 매춘부가 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식으로 신여성을 부정적 이미지로 그리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가부장제를 더욱 강화시키고자 하는 계도적 역할을 하였다. 제목과 같이 자유로운 여성이 아닌, 불륜을 저지른 징벌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또한 한국 전쟁 이후에 여성이 점차 사회에 진출하는 것과 수입된 서양 물품이 양품점을 통해 판매되면서 서양 문화를 함께 받아들이고 서양식 복장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을 한 서양식 마인드의 신여성이 등장하고, 여성들에게 명품이 선호되는 현상을 성적인 타락과 연결시키며 여성의 사회 활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였다.

영화가 만들어진 1950년대에는 메이크업이 아직 발달하지 못하였고 흑백영화라는 한계점이 있어, 색조 면에서 특징적인 모습이 보이지는

않지만, 50-60년대 한국에서 유행하던 신여성의 서양식 의상과 헤어 스타일이 한복을 입은 전통적 여인과 대조적으로 표현되었다.

대학교수의 부인 오선영 역의 영화 배우 김정림은 우선 의상 스타일에 있어 큰 변화를 보여준다. 집에서 내조를 할 때는 한복 차림으로만 나왔으나<그림 34>, 양품점에서 일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한복에서 양장으로 변화였다.

한복 차림일 때는, 작은 꽃무늬가 들어간 화려한 저고리를 입었으나, 외출 시엔 여전히 두루마기와 목도리를 착용하였고, 가방은 서양식 가죽 가방을 들어 서양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차림이었다. 양장 차림으로 바뀐 후에는 원피스에 카디건 차림 또는 재킷과 치마 정장으로 이루어진 투피스의 정장 스타일을 입었고, 가슴에 브로치를 달았다. 그러나 그 외의 귀걸이, 목걸이와 같은 화려한 액세서리는 착용하지 않았다.<그림 35>

미용에 있어서는 당시에는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유교사상이 계속 이어져 기생과 같은 천한 여성만 꾸미고 다닌다는, 여성의 꾸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여성들은 1900년대 중반까지도 색조를 사용하지 않고, 호스티스 등의 하층 여성이 주로 메이크업을 하였다. 다만 1876년 개항 이후 여성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기 시작하여 1900년대에 이르러서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일본 등지에서 유학하고 돌아오거나 고등교육까지 받은 인텔리 여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을 중심으로 미용실에서 빠마 머리라고 부르던 퍼머넌트 웨이브(Permanent wave)를 하거나 커트를 치고 메이크업 하는 것이 점차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영화에서 김정림이 보여준 메이크업은 50년대 유행하던 하얗고 매트한 피부표현에 두껍고 진한 눈썹과 노우즈 새이딩(Nose Shading), 눈두덩을 브라운색으로 어둡게 칠한 것이 특징이었다. 50년대는 메이크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서양영화에 나온 배우들의 스타일을 모방하곤 했는데, 1953년 ‘Roman Holiday(로마의 휴일)’ 에서 Audrey Hepburn(오드리 헵번)의 굵고 진한 눈썹이 한국에서도 유행하였다. 헤어스타일은 한복과 양복에 모두 어울리는 짧은 머리에 Permanent wave(퍼머넌트 웨이브)<sup>38</sup>를 한, 가르마가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스타일이었다. 특히 짧고 곱이 들어가 있는 앞머리 살짝 올려 세운 것이 특징이다.

이 영화에서 팜프파탈로 그려진 여성형은 신여성 스타일이었다. 신여성 스타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외적으로 달라진 특징을 현모양처형일 때 모습과 비교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1> 영화 ‘자유부인’의 캐릭터 스타일링 비교

구분	현모양처 스타일의 김정림	신여성 스타일의 팜프파탈
의상	평상시 한복, 외출 시 두루마기 차림	무릎까지 오는 원피스나 재킷과 치마의 양장 차림
액세서리	고무신	귀걸이, 브로치, 서양식 구두
헤어스타일	옆가르마의 짧은 빠마머리	동일
메이크업	하얗고 매트한 피부표현, 진하고 두꺼운 눈썹	동일

<sup>38)</sup> 일본식 발음의 영향으로 ‘파마머리’ 또는 ‘빠마’ 라고 불려졌다.



(그림 34) 영화 ‘자유부인’의  
한복을 입은 김정림  
(www.kmdb.or.kr)



(그림 35) 영화 ‘자유부인’의  
양장 차림의 김정림  
(VOD 직접 캡처)

1958년 신상옥 감독의 ‘지옥화(地獄花)’에서는 당대 최고 여배우 최은희가 기지촌의 양공주<sup>39</sup>를 연기했다. 온 사회를 떠들썩 하게 했던 ‘양주열차 갱 사건’이 영화화 된 이 영화에서 한복이 잘 어울리는 배우로 평가 받던 최은희가 검정 드레스와 담배, 선글라스 등의 서구적 물품을 사용하며 신여성의 모습으로 변신하였다. 스토리는 다음과 같다.

양공주인 소냐는 시골집과 연락을 끊고 기지촌에 사는 영식과 연인 같은 사이나, 영식을 찾으러 시골에서 올라온 영식의 형 동식을 유혹하고 동식은 그로 인해 괴로워한다. 동식과 만나고 싶던 소냐는 미군 창고에서 물품을 절도하는 일을 하던 영식을 신고하고, 미군과 영식, 동식과 소냐의 추격전이 벌어진다. 추격전 중 상처를 입고 쓰러져있던 영식은 도망가려던 소냐와 동식의 얘기를 듣게 되고 결국 모든 정황을 알게 된

<sup>39)</sup> 서양 사람에게 몸을 파는 여자 =양갈보

영식에 의해 소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영식 역시 죽게 된다는 한국 전쟁 후 사회적 상황이 잘 그려진 영화이다. 소냐는 관능적 외모와 행동으로 남성을 유혹하고 파멸로 몰아넣는 악녀로 그려졌고, 그녀가 양공주로서 보여준 미국식 의상과 헤어스타일, 성에 대한 사고 방식은 서구 문화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동경하던 당시 여성들의 심리를 반영했다. 또한 성적으로 점차 개방되는 것을 억누르려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되어 소냐 역시 죽음을 통해 처벌받게 되었다.

양공주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신여성 이미지로 그린 이 영화에서는, 당시 미군 부대와 양장점을 통해 수입된 화장품이 유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서양의 스타일을 모방한 것이 나타났다. 하얗고 매트한 피부에 두꺼우면서 짙은 눈썹을 각지게 그리고 속눈썹에 마스크라를 발라 눈매를 강조했고, 붉은 립스틱을 도톰하게 아웃커브 형태로 발라 도발적으로 보이게 하였다. 자신의 본 모습은 감추고 호스티스라는 직업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여성에 비해 짙은 메이크업을 하였다. <그림 36>

헤어스타일은 최고의 신여성들이 하던 옆가르마의 풍성한 짧은 머리를 하였고, 의상은 화려하게 연출되었는데 어깨 부분이 없이 앞 몸판의 끈을 목 뒤에서 묶어서 고정하는 홀터넥 검정 원피스<그림 37>와 팔 부분이 없는 민소매와 전체적으로 몸매를 감싸듯 달라붙는 라인에 허리라인을 더욱 살리는 허리를 짝 조여 매는 스타일의 7부 바지에, 가슴 라인까지 어깨가 훤히 드러난 튜브 탑 스타일의 드레스<그림 38>, 어깨가 넓게 파인 원피스 등 살결을 드러내는 옷을 주로 입었고, 허리띠를 하여 허리라인을 강조하였다. 액세서리 역시 금빛 목걸이와 링귀걸이,

달랑거리는 스타일의 귀걸이, 팔찌 등 화려한 것을 주로 하였고, 외출 시에는 선글라스를 쓰거나 스카프를 두건으로 사용기도 하였다. 또한 5-7cm의 높은 구두를 신고, 서양식 화려한 가방을 들었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1961년)’, ‘성춘향(1961년)’ <그림 39> 등 100개가 넘는 다른 작품에서는 주로 한국적 여성상을 연기했던 최은희는 ‘지옥화’ 에서 양공주인 소냐 역할을 맡아 전혀 다른 모습의 자유스럽게 담배 피는 모습이 연출되어 몸을 팔면서도 당당한 모습의 여성으로 그려졌고, 당시 여성들의 화장에 비해 진하고 도발적인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하였다. 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영화 ‘지옥화’ 의 캐릭터 스타일링 비교

구분	다른 영화에서 한국적 여인상의 최은희	‘지옥화’ 에서 팜프파탈형 여인, 최은희
의상	한복	튜브탑, 홀터넥 등 가슴라인이 드러나고 허리가 잘록하며, 몸에 밀착되는 형태의 서양식 의상
액세서리	고무신, 노리개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선글라스, 하이힐,
헤어스타일	가운데 가르마의 쪽머리	왼쪽 가르마의 짧은 빠마 머리
메이크업	색조가 들어가지 않음	하얗고 매트한 피부, 진한 눈썹, 진한 아이라인, 빨간색 립스틱



(그림 36) 영화 ‘지옥화’ 에서  
최은희 메이크업  
(VOD 직접 캡처)



(그림37) 영화 ‘지옥화’ 의  
최은희1  
(VOD 직접 캡처)



(그림 38) 영화 ‘지옥화’의  
최은희2  
(VOD 직접 캡처)



(그림 39) 영화 ‘성춘향(1961년)’의  
최은희  
(www.kmdb.or.kr)



1962년 김기영 감독의 ‘하녀(下女)’에서는 여배우 이은심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악녀 스타일의 팜프파탈로 등장한다. 영화에서 악녀로 등장하는 가정부 명자는, 재봉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생활력 강한 현모양처인 동식의 부인과 대조적인 여성으로 등장한다.

방직 공장의 음악부 선생님인 동식을 짝사랑하다가 사감에게 걸려 실직한 친구의 복수를 위해 경희는 동식의 집에 피아노 레슨을 다니고, 아내가 아프자 동식은 경희를 통해 가정부를 소개받는다. 아내가 친정에 다니러 간 사이, 경희가 동식에게 고백하지만 거절당하고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본 가정부 명자가 동식을 유혹한다. 가정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동식의 아내는 낙태하도록 강요하고, 낙태 후 가정부는 광적으로 집착하며 복수를 시작하게 된다. 동식의 아들을 죽이고, 결국에는 동식을 협박하여 함께 쥐약을 먹고 자살하는 내용으로, 악녀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동식의 부인은 가부장제 속에서 가정을 지키려 애쓰는 여성으로, 명자는 하녀처럼 취급 받는 사회적 위치에서 사랑과 신분 상승을 위한 결혼을 시도하면서 가정을 파괴하는 악녀로 그려지고 있다.

가정부가 주인을 유혹하는 내용에서 에로틱하면서도 영화 내내 무표정한 표정의 가정부와 어두운 집을 배경으로 그로테스크(grotesque)<sup>40</sup>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팜프파탈 이미지를 그려냈다.

하녀 역의 이은심은 가정부 역할이었기 때문에, 많이 꾸미지 않은 내추럴한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하였지만, 눈썹은 다소 두껍고 진하게

---

<sup>40)</sup> 원래 이탈리아어로 보통의 그림에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를 장식하기 위한 색다른 의장(意匠)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괴기한 것, 극도로 부자연한 것, 흉측하고 우스꽝스러운 것’ 등을 형용하는 말로 사용된다.

표현되었는데, 당시 눈썹을 그리는 재료가 솜에 가까운 것이었고 대부분은 수입품을 몇 가지만 사용하는 등 열악한 조건이었고 현재의 메이크업 제품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흑백 영화였기 때문에 눈과 입술의 색조 표현에 한계가 있었다. 의상은 한복을 입은 동식의 부인이 현모양처형으로 꾸며진 것<그림 40>과 대조적으로 무릎까지 오는 검정의 서양식 원피스나<그림 41> 단정히 정리하지 않은 긴 원피스, 반팔 상의에 종아리까지 오는 길이의 헐렁한 스타일 치마를 입고, 일할 때는 검정색의 앞치마를 매는 등 주로 양장 차림이었다. 헤어스타일 역시 동식의 부인은 가운데 가르마의 고전적인 헤어스타일인 반면 이은심은 정돈되지 않은 곱슬곱슬한 앞머리에 뒷부분은 웨이브기가 있는 긴 머리를 헝클어지게 늘어뜨리고 있거나, 두 갈래로 영성하게 뿔은 깔끔하지 않은 스타일을 보였다.

<표 3> 영화 ‘하녀’의 캐릭터 스타일링 비교

구분	현모양처형 동식의 아내	가정부 역의 팜프파탈, 이은심
의상	한복	호트러진 모습의 원피스 차림, 반팔 상의에 헐렁한 긴 치마
액세서리	흰색 앞치마	검정색 앞치마,
헤어스타일	가운데 가르마의 쪽머리	앞머리를 내린 호트러진 긴 머리, 양쪽으로 뿔은 긴 머리
메이크업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또는 노메이크업	두껍고 짙은 눈썹, 마스카라를 바른 속눈썹, 짙은 아이라인,



(그림 40) 영화 '하녀'의  
동식 아내 역 주중녀  
(VOD 직접 캡처)



(그림 41) 영화 '하녀'의 이은심  
(VOD 직접 캡처)

이와 같이 팜프파탈이 등장한 초기 한국 영화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여성 또는 식모, 여공 등 하층 계급의 여성이 주로 등장하였다. 특히 하층 계급의 여성이 자주 주인공이 되었는데, 성을 이용해 사랑을 얻거나 계급 상승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는 상황이 자주 그려졌기 때문이었다.<sup>41)</sup> 또한 고전으로부터 권선징악의 구도를 계승하여 악녀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끌었다.

한국 영화에 등장했던 팜프파탈은 때로는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남을 해치게 되는 여성으로 그려지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한국형 느와르 영화라 칭해지는 조해미 감독의 1965년작 미스터리 추리극 '불나비'를 들 수 있다. 변호사 성훈은 시체를 보고 놀란 미세스 양을 구해주게 되고, 그녀의 미모에 매료 당한다. 본명이 민화진인 그녀는

<sup>41)</sup> 맹수진 (2004), 『한국영화, 섹슈얼리티를 만나다』, 생각의 나무, p.116.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녀의 이복남매인 민병태에게 강간을 당하고, 불구자인 양태호에게 억지로 시집을 가게 된다. 그녀의 첫사랑이었던 문인수가 민병태를 찾아와 그와 다투던 날, 문인수는 살해당하고, 그녀 주변 사람들이 살해 당하기 시작한다. 성훈은 민병태를 의심하지만 병태 역시 살해당하고, 화진은 오빠의 장례식에서 오빠에 대한 복수 때문에 여러 남자를 만나며 불륜을 저질렀다고 성훈에게 고백하고, 복수의 대상이 사라진 이상 불구자인 남편을 간호하며 살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불구자로 알았던 남편 양태호는 성훈이 민화진을 구해주었던 영화 초반에 만났던 자신을 화진의 숭배자라고 지칭하며 화진을 미행하던 사람이었고, 성훈은 그가 견지 못하는 척 하며 살아왔으며, 성불구자로 화진을 갖지 못하는 것에 괴로워하며 그녀 주변의 남자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경찰이 온 것을 안 남편 양태호는 화진에게 도망치자고 하지만 그녀가 거절하자 함께 자살하려 불을 지르고, 화진은 성훈에게 구출되지만 스스로를 더러운 몸이고 죄를 받아야 한다며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당대 최고 인기 여배우 김지미가 연기한 민화진은, 그녀의 미모 때문에 남자들이 죽게 되는 팜프파탈로 등장하며, 권총, 칼, 스포츠카의 등장으로 서구적 미스터리물의 형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국의 필름 느와르가 팜프파탈형 여성이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남성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과 달리, 의도하지 않았으나 주변 남자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 또한 한국의 시대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많은 남자를 만나긴 했지만 마지막까지 순결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서양과는 다른 한국형 필름 느와르의 팜프파탈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 이 영화에서도 역시 여주인공이

의도와 상관없이, 남성은 과멸에 빠지고 팜프파탈 본인 역시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게 되면서 초반의 한국형 팜프파탈은 어떤 방법으로든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된다는 형식을 따른다.

주인공역의 김지미는 정숙한 한복 차림부터 화려하고 서양식 의상과 최신 헤어스타일을 선보였다. 영화의 시작 장면에서는 니트로 된 민소매와 짧은 체크무늬 반바지를 입고, 밖으로 뻗치는 모즈풍의 헤어스타일에 두건을 쓰고 선글라스까지 쓴 채 오픈카를 직접 운전하는 신여성으로 등장한다.<그림 42> 그러나 변호사 성훈과 식당에서 다시 만나는 장면에서는 흰색 한복을 입고, 가운데 가르마를 탄 후 뒤에 둥그런 쪽머리 가발을 붙이고 정숙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그림 43>

그러나 불구자인 남편을 대전에 두고 친정에 와있는 그녀는 다시 신여성으로 변신한다. 민소매의 화려한 검정꽃무늬가 그려져 있는 등한가운데가 원형으로 파인 원피스에 얇은 검정 허리띠로 몸매를 살리고, 화려한 큰 구슬 목걸이를 착용하였으며, 헤어스타일 역시 뒤를 크게 부풀린 화려한 업스타일이었다. 메이크업은 한복과 서양복을 입을 때가 특별히 큰 차이점 없이, 두껍고 진한 눈썹에, 아이라인을 진하게 그리고 속눈썹을 붙인, 눈의 라인을 강조한 모습이였다.<그림 44>

별장에서 말을 타는 장면에서는 셔츠에 조끼를 입고 7부바지 위에 검정 가죽 부츠를 신고 서양식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도 등장하였다. 다시 친정 집에 돌아온 날은 비 오는 날에 맞게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었고, 그 안에는 흰색의 원피스를 입었다. 왼쪽 가슴에는 화려한 브로치를 달고, 3-4cm의 흰구두를 신고 시계와 반지도 착용하고 있었다.<그림 45>

오빠가 살해당한 후 장례식에서는 검정 원피스에 큰 진주알로 된 귀걸이를 끼고, 검정 토트백을 들고, 이마까지 검정 망사가 있고 흰 꽃을 달아 상을 당했음을 표시한 검정모자를 썼다. 마지막 장면에서 복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난 후 다시 정숙한 여인으로써 남편을 보살피기로 다짐한 후의 김지미는 다시 한복 차림으로 돌아와 서울에서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표현되었다. 꽃무늬가 중간중간 박힌 한복에 흰고무신을 신었고, 헤어스타일은 처음의 한복을 입었던 것처럼 뒤에 쪽머리 가발을 붙이긴 했으나 서양식의 옆가르마를 타고, 한복에 브로치를 달아 한복에서 서양복으로의 과도기적 형태를 보이기도 했다.

<표4> 영화 ‘불나비’의 캐릭터 스타일링 비교

구분	현모양처 스타일의 김지미	신여성의 팜프파탈, 김지미
의상	한복	민소매의 원피스, 칠부 바지, 반바지 등 서양식 의상
액세서리	흰고무신, 브로치	브로치, 선글라스, 귀걸이, 목걸이, 시계, 두건, 모자, 구두, 가죽 부츠 등
헤어스타일	가운데 가르마의 전통적 쪽머리 스타일	앞머리가 있는 모즈풍의 단발 길이의 빠마머리, 뒤를 풍성하게 한 업스타일
메이크업	풍성한 속눈썹, 두껍고 진한 눈썹, 진한 아이라인	동일



(그림 42) 영화 ‘불나비’의  
김지미1  
(VOD 직접 캡처)



(그림 43) 한복 차림의 김지미  
(VOD 직접 캡처)



(그림 44) 영화 ‘불나비’의  
김지미2  
(VOD 직접 캡처)



(그림 45) 영화 ‘불나비’의  
김지미3  
(www.kmdb.or.kr)

## 2. 현대 한국 영화에 나타난 팜프파탈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는 한국 영화 산업이 잠시 후퇴하는 시기였다. TV의 보급으로 영화 관객이 줄었을 뿐 아니라,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에 의해 지나친 검열로 표현의 자유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또한 1970년대와 8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예로 영화 전성시대였는데, 여성이 주연인 영화는 대부분 예로물로 팜프파탈형 여성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대부분 여성의 섹슈얼리티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한국 영화는 재도약하였고, 할리우드의 필름 느와르적인 분위기의 영화를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서 팜프파탈형 여성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한국 영화의 팜프파탈이 주로 하류층의 여성들이었던 것에 반해, 계층과 직업이 점차 다양해지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당당한 여성 이미지가 더해졌다. 또한 흑백 영화였던 것에 비해, 현대는 컬러 영화 위주로 제작되어 시각적으로 표현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특히 패션과 화장품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에 힘입어 의상과 메이크업에 다양한 컬러가 등장한다.

1997년 정지영 감독의 스릴러물 ‘블랙잭(Blackjack)’은 서양 영화 ‘이중배상(Double Idemnity, 1944년작)’을 리메이크한 ‘보디히트(Body Heat, 1981년작)’와 스토리 면에서 유사하다. 강수연이 연기한 장은영은 보디히트의 매티(Matty)와 같이 사랑을 이용하여 남성을 유혹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남성을 파멸시키는 전형적인 팜프파탈이다.



이혼남인 비리 형사 오세근은 장은영을 만나 불륜 관계가 되고, 남편이 무서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남편으로 인해 불안해 보이는 그녀에게 연민을 갖고 있던 세근은, 불륜 사실을 알고 자신을 위협하자 은영을 도와 그녀의 남편을 살해하지만, 모든 것은 그녀의 음모였다. 복싱 관계자로 알았던 그녀의 남편은 알고 보니, 경찰 간부였고, 그녀는 보호본능을 일으키는 외모와 달리, 세근을 유혹해 남편을 죽이고,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남편의 돈을 빼돌리려던 악녀였던 것이다. 비리 수사를 진행하던 형사에 의해 세근이 살해를 저지른 것이 꼬리가 밟히고 도망가다가 교통사고가 나 죽은 것으로 모든 사건이 끝나게 된다. 그러나 죽지 않고 돌아온 세근을 본 은영은 차로 치고 도망가며 끝이 난다.

장은영 역의 강수연은 지적이면서 보호본능을 일으키는 소녀 같은 청순한 이미지이다. 오세근 형사 우연히 만난 후, 다시 만난 자리에서 장은영은 내기 권투장을 운영하는 사장의 부인임을 거짓으로 암시한다.

이 장면에서는 큰 꽃이 그려져 있는 어두운 빨간색의 원피스와 검정색 하이힐을 신고, 액세서리로 반지, 귀걸이, 발찌까지 착용하고 하얗고 매트한 피부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섹시한 의상을 입었지만<그림 46>, 동시에 지적이고 청순한 말투로 세근을 서서히 유혹하게 된다. 그러나 세근과 가까워진 이후에는 청순한 이미지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청순한 은영으로서의 의상은 주로 긴 원피스 또는 무릎 길이의 정장 치마에 아이보리색이나 황토색 류의 재킷 등 단정한 정장을 입고, 옆으로 매는 깔끔한 가방을 들고 액세서리는 목걸이만 하였으며, 헤어스타일은 계속 도시적이면서 깔끔한 짧은 단발로 유지되지만, 앞머리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웨이브를 넣었다.<그림 47>

메이크업은 청초한 외모와 어울리는 내추럴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었다. 베이스 메이크업은 피부색에 맞추어 깔끔하고 부드럽게 표현하고, 눈썹은 1990년대에는 아치형의 눈썹과 진하고 다양한 색조 화장이 유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썹산을 살리지 않고 그려 선한 느낌이 들게 하였다. 연한 색상의 핑크 아이섀도우를 바르고 속눈썹 가까이는 바이올렛으로 포인트를 주어 색조는 절제하였고, 작은 입술에 발라진 선홍빛의 립스틱 색의 메이크업으로 청순한 이미지를 살려냈다.

마지막 장면에서 남편의 재산을 차지하고 난 후 은영은 다시 빨간 드레스를 입고 빨간 립스틱을 바른 채, 비 오는 날임에도 선글라스를 쓰고 운전하며, 청순한 이미지는 모두 거짓이고 연기였음을 암시한다.

<표 5> 영화 ‘블랙잭’의 캐릭터 스타일링 비교

구분	관능적인 팜프파탈, 강수연	청순한 팜프파탈, 강수연
의상	짙은 빨간 원피스,	밝은 색 위주의 단정한 정장, 무릎 길이의 원피스
액세서리	귀걸이, 목걸이, 팔찌, 은색 매니큐어, 검정 하이힐	옆으로 매는 단정한 스타일의 가방, 목걸이
헤어스타일	단정한 짧은 단발	단정한 짧은 단발에 부드럽게 웨이브 진 앞머리
메이크업	하얗고 매트한 피부, 짙은 빨간 립스틱	부드러운 피부표현, 선홍빛 립스틱



(그림46) 영화 ‘블랙잭’의  
섹시한 강수연  
(VOD 직접 캡처)



(그림 47) 영화 ‘블랙잭’의  
청순한 강수연  
(VOD 직접 캡처)

1999년 장윤형 감독의 스릴러 영화 ‘Tell me something(텔 미 썸딩)’에서는 차가우면서 청순한 팜프파탈이 등장한다.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는 사악한 여자지만, 청순한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보호받는, 거짓말로 진실을 숨기는 팜프파탈이다.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연쇄 토막 살인 사건을 수사하던 조형사는 희생자들이 모두 채수연의 과거의 남자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건은 살해된 사람의 토막 난 시체 중 한 부위가 사라지고, 다음 희생자와 함께 나타나는 수법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끝이 나지 않은 사건의 연속 속에 수연 역시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조형사는 수연을 보호하게 되면서 그녀에게 매력을 느끼게 된다. 오형사는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되지만 수연과 함께 살인사건에 가담한

수연의 친구 승민에게 살해된다. 수사망을 좁히던 조형사는 승민을 모든 사건의 살인자로 파악하지만, 마지막에 수연과 있던 승민이 죽게 되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고, 수연은 서울에서의 생활을 접고 유유히 프랑스로 떠난다. 수연이 떠난 후, 조형사는 모든 사건이 수연이 한 일임을 알게 되지만, 그녀는 떠난 뒤였다.

배우 심은하는 내추럴한 화장으로 청순하지만 한편으로는 차가운 이미지를 잘 살려냈다. 주로 흰색 셔츠나 재킷 정장을 입어 순수하게 보이게 하였고, 깔끔한 스트레이트 긴 단발머리로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었다. 베이스 메이크업은 파운데이션을 결점을 커버하는 정도로만 얇게 발라 깨끗하게 표현하였고, 눈썹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새도우와 아이라인과 마스크라도 진하지 않게 발라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보여준다. 입술은 핑크색이나 연한 브라운색이 섞인 듯한 핑크색 류의 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2000년대에 가까워지면서 피부결까지 다 보이는 영상장비의 발전과 메이크업 제품의 발전으로 점차 베이스 메이크업이 내추럴해지는 경향으로 바뀌어갔는데, 이 영화에서 보여준 청순한 메이크업이 과도기적 메이크업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그림 48>

그러나 영화 마지막 부분의 반전에서, 청순했던 그녀가 본성을 나타내며 한국을 떠나는 장면에서는, 영화 전반부와 다르게 눈썹에 각이 생기고 아이라인도 조금 진해지고, 볼터치와 펄감이 들어간 새도우도 더하는 등 색조가 들어간 메이크업을 하였고, 민소매의 원피스와 진주 목걸이로 깨끗하지만 조금 화려해진 모습으로 변신하였다.<그림 49>

<표 6> 영화 ‘Tell me Something’ 의 캐릭터 스타일링 비교

구분	청순한 팜프파탈, 심은하	화려한 팜프파탈, 심은하
의상	노출의 거의 없는 흰색의 셔츠와 재킷이 주류	민소매의 흰색 원피스
액세서리	거의 없음	진주 목걸이
헤어	어깨길이의 단정한 단발, 느슨하게 묶은 반묶음 머리	깨끗하게 묶은 머리
메이크업	색조가 거의 없음, 얇은 베이스, 부드러운 눈썹	깨끗한 피부, 각진 눈썹, 진한 아이라인, 펄새도우, 홍조 뽀 볼터치



(그림 48) 영화 ‘Tell me Something’ 의 청순한 심은하 (VOD 직접 캡처)



(그림 49) 영화 ‘Tell me Something’ 의 화려한 심은하 (VOD 직접 캡처)

2004년 김인식 감독의 ‘얼굴 없는 미녀’에서는 지적이고 매혹적이지만 결혼하기 전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보내야 했던 기억 탓에 누군가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정신착란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한 남자를 망치게 되는 팜프파탈로 등장한다.

지적이고 매혹적인 지수와 능력 있는 외환딜러 민석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신혼부부지만, 지수는 부족한 것 없는 풍요로운 생활 속이지만 자신의 신경쇠약으로 인해 사람들이 멀어져 혼자라는 공허함에 시달리고 결국 온갖 환청과 환상에 시달리며 신경질적으로 변해간다. 민석은 견디다 못해 그녀를 신경정신과에 데려가고, 지수는 그곳에서 전문의 석원을 만나게 된다.

석원은 주체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힘겨워하는 지수에게 연민을 느끼지만 병원을 그만두게 되면서 도와주지 못한 채 헤어지고, 1년 뒤, 난처한 상황에 처해 난동을 부리고 있던 지수를 우연히 도와주게 된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더욱 위태로워진 지수는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석원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채 헤어진 후, 우연히 친구관계가 된다. 지수는 석원의 병원을 찾아가 최면 치료를 받으며 마음속 깊이 굶어있는 사랑의 상처를 치유해간다. 그렇게 지수가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동안, 반대로 석원은 최면에 빠진 지수와 깊은 관계가 되면서 점차 그녀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며 불안함에 빠지고, 지수 역시 석원에게 옛사랑의 체취를 느끼지만 그 마음에 확신을 갖지 못한다. 이제 지수가 없으면 견딜 수 없게 된 석원은 떠나려는 지수에 대해 전화로

최면을 걸어 자신을 찾아오도록 하지만, 그녀의 핸드폰을 가진 지수의 남편이 몇 개월 동안 의도적으로 대신 받고, 석원은 지수와 연락이 되지 않자 정신착란증에 빠지며 점차 망가져간다.

남편과 함께 외국으로 떠나려던 지수는 석원을 찾아가려다 교통사고가 나고 사체를 다 수습하지 못한 채로 매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한다. 계속되는 정신착란증 속에 지수가 그의 병원으로 찾아오지만, 석원의 환상 속에서 얼굴이 반만 남은 채 피를 흘리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놀란 석원은 결국 뒷걸음치다 떨어져 죽고 만다.

영화 내내 그녀의 불안한 심리 상태는 붉은 색과 유리로 표현된다. 붉은 색의 방과 붉은 침대, 방에 가득 있는 유리 소품은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그녀의 심리를 반영하였다.

또한 그녀의 외모는 불안한 심리를 반영하여 퇴폐적이고 어두운 느낌으로 나타난다. 최면 속에서 행복한 때를 떠올릴 때 나타난 그녀의 과거 모습은, 자연스러운 컬이 살짝 들어간 긴 머리에 색조가 거의 들어가지 않은 청초한 메이크업이었고, 의상도 밝은 색상이었다.<그림 50>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이후의 현재 모습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선호하지 않는 짙고 어두운 빨간색의 원피스, 빨간 잠옷, 붉은 계열의 모피코트<그림 51> 등 주로 야한 느낌을 주면서도 침울한 분위기의 진한 빨간색의 옷이나 짙은 브라운 또는 검정색의 어두운 외투<그림 52>를 입었고, 아예 화려한 밝은 노란색 재킷이나 호피 무늬 의상을 입었고, 빨간색이나 검정색의 8~10cm정도의 하이힐을 신었다. 가방 역시 진한 계열의 빨간색, 검정색, 파란색 등 강렬한 색의 가방이

등장했고, 액세서리로는 크기가 크고 화려한 반지와 귀걸이, 얼굴의 반 이상을 가리는 큰 선글라스 등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은 헤어스타일이었다. 파마를 해 크게 부풀려 정돈되지 않고 매우 흐트러진 느낌으로 연출한 헤어스타일로 불안한 심리 상태를 나타내었다. 메이크업 역시 눈에 띄게 강한 어두운 느낌의 빨간 립스틱을 아웃커브로 그리거나 우울한 느낌을 주는 연한 갈색 새도우, 황토색에 가까운 갈색류의 립스틱을 발랐는데, 색상이 우울한 표정과 어울렸다. 빨간 입술을 바를 때는 볼터치 역시 붉은색으로 강하게 바깥쪽에서 볼 안쪽으로 당기듯이 발라주고 끝이 길게 빠진 아이라이너를 그려 강한 느낌이 나도록 하였다. <그림 53>

<표 7> 영화 ‘얼굴 없는 미녀’의 캐릭터 스타일링 비교

구분	청순한 김혜수	강한 느낌의 팜프파탈, 김혜수
의상	밝은 색상의 의상	빨간색의 원피스, 재킷, 검정색의 외투, 호피무늬 의상, 아주 밝은 노란 재킷
액세서리	없음	화려한 목걸이, 팔찌, 큰 크기의 반지, 선글라스, 하이힐, 짙은 파란색 가방,
헤어	자연스러운 긴 생머리	흐트러진 파마 머리
메이크업	내추럴 메이크업	갈색 새도우, 짙은 빨간 립스틱, 강한 볼터치, 길게 뻗 아이라이너





(그림 50) 영화 ‘얼굴 없는 그녀’의 청순한 김혜수  
(VOD 직접 캡처)



(그림 51) 영화 ‘얼굴 없는 그녀’의 강한 김혜수1  
(VOD 직접 캡처)



(그림 52) 영화 ‘얼굴 없는 그녀’의 강한 김혜수2  
(VOD 직접 캡처)



(그림 53) 영화 ‘얼굴 없는 그녀’의 강한 김혜수 3  
(<http://movie.naver.com>)

2005년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는 당대 최고의 스타 이영애의 출연과 청순했던 이전의 이미지와 다른 악녀 이미지의 배역, 빨간 새도우의 메이크업으로 개봉 전부터 주목을 받았던 영화이다.

고등학교 시절 불장난으로 리틀맘<sup>42)</sup>이 된 미모의 소유자 금자는 스무살에 어린이 유괴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감옥에 가게 되고, 언론에 유명세를 치른다. 13년간 복역하면서 모범적인 수감 생활로 ‘친절한 금자씨’라는 별명을 얻은 그녀는 출소한 후, 감옥에서 쌓은 인맥을 이용하여 자신의 딸을 미끼로 누명을 씌운 백선생에 대한 복수를 시작하게 된다. 수감 시절 친구였던 박이정이 미모를 이용하여 백선생과 결혼하면서, 복수의 길을 열게 되고, 13년 전 납치당한 어린 아이들의 부모와 함께 백선생을 처단하게 된다. 그녀가 친절하게 대하며 만든 인간관계는 복수를 위한 사전 계획일 뿐이었고, 오로지 목적은 복수 하나였기에 금자는 영화 초반에 교도소에 복역하던 시절에는 앞머리를 단정하게 일자로 자르고 생머리를 반묶음하여 깨끗하게 묶거나 하나로 묶고, 색조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순수하고 착해 보이는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으로 나오지만<그림 54>, 복수를 할 때에는 착해 보이지 않으려는 의도로 스타일이 많이 변하게 된다. 창백하고 매트 해 보이는 베이스 메이크업에 아이새도우의 색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빨간색을 바르고 입술은 의도적으로 창백하게 하여, 청순한 이미지의 외모이지만 복수를 하는 강한 여성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하였다. 헤어 스타일 역시 크게 웨이브 넣은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

<sup>42)</sup> 실수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10대 엄마를 가리키는 신조어

잔머리가 많이 나오게끔 대충 묶어 의도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강한 느낌이 들게끔 하였다. <그림 55>

의상에 있어서는 감옥에서 나올 때 입은 물방울 무늬 원피스나 선글라스, 분홍색 하이힐, 그리고 그녀가 쓰는 화장품, 핸드폰 고리 등의 소품은 스타일을 더 부각시켰다. 복수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진한 남색 계열의 코트를 입거나<그림 56>, 검정 가죽 재킷에 검정 가죽 부츠를 신고 가죽 장갑을 끼는 등<그림 57>, 주로 검정색, 남색 등의 어두운 색의 옷을 입었다. 이러한 의상을 입은 채 싸우는 장면에서 총을 드는 장면으로, 백선생에게 복수할 땐 칼과 삽을 든 모습으로 더 강한 이미지로 어필하였다. 헤어스타일은 정돈되지 않고 헝클어진 긴 파마머리나, 질끈 묶되 밖으로 머리카락이 다수 빠져 나오는 스타일을 하였다.

<표 8>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캐릭터 스타일링 비교

구분	청순한 이영애	강한 느낌의 팜프파탈, 이영애
의상	밝은 교도소 복장	가죽 재킷, 짙은 파란색의 외투
액세서리	없음	가죽 장갑, 부츠, 화려한 목걸이
헤어스타일	단정한 일자 앞머리에 반묶음 또는 하나로 묶는 스타일	웨이브 넣어 풀어헤친 머리, 잔머리 나오게 대충 묶은 머리
메이크업	내추럴 메이크업 또는 노메이크업	창백하고 매트한 피부 표현, 빨간색 아이섀도우, 창백한 입술



(그림 54)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청순한 이영애  
(VOD 직접 캡처)



(그림 55)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이영애 메이크업  
(VOD 직접 캡처)



(그림 56)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이영애1  
(VOD 직접 캡처)



(그림 57)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이영애2  
(VOD 직접 캡처)

2006년 최동훈 감독 '타짜'의 정마담은 카리스마와 매혹적인 외모로 남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팜프파탈이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노력하던 청년 고니는 우연히 도박판에 발을 들이게 되고, 전설의 타짜 평경장에게 매달려 타짜가 된다. 도박판을 설계하는 정마담을 알게 된 고니는 미리 짜놓은 도박에서 큰 돈을 따게 되고 점점 돈과 정마담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다. 정마담이 고니에게 애증을 가진 것을 알게 된 아귀는 정마담을 미끼로 하여 고니를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판에 끌어들이고, 돈을 둘러싸고 죽고 죽이는 관계 속에서 아귀에 의해 고니의 사부 평경장이 죽게 된다. 마지막에 평경장이 죽인 사람이 아귀가 아니라 정마담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정마담은 고니에 대한 애정과 돈 사이에서 결국 돈을 선택하게 된다.

정마담은, 도박판을 설계하고 고니를 투입하는 일, 고니와의 관계에서도 주도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여성형의 팜프파탈이었다.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 김혜수가 커리어우먼 느낌의 도시적이고 엘레강스하면서 관능적인 스타일로 연기함으로써, 정마담이 권력을 가지고 남성을 조정하는 강력한 여성 캐릭터로 잘 살려낼 수 있었다.

영화 중반부에 돈 많은 남성을 유혹하기 위해 청순한 이미지로 나오는 장면에서는 짧은 머리지만 컬을 살짝 주어 끝이 뽀치는 귀여운 느낌의 컷머리에, 여성적인 느낌의 밝은 분홍색의 레이스가 들어간 하늘하늘한 드레스를 입고 흰색에 가까운 분홍색의 귀여운 가방을 들었으며, 색조는 거의 들어가지 않은 투명한 느낌의 화장을 하였다.<그림 58>

그와 대조적으로 섹시한 이미지로 나올 때는 아이 메이크업은 라인을

짙게 그려 눈매를 또렷하게 만들고, 도톰했던 본래의 입술선에서 더 도톰하게 아웃커브로 그리고 선명한 붉은 립스틱을 발라 조금 매트하고 하얀 얼굴에 강조되어 보이는 립메이크업에 중점을 둔 도발적인 이미지를 만들었다. 단정한 느낌의 생머리의 짧은 커트머리에 둥글게 앞머리를 늘어뜨리고, 목걸이와 늘어뜨려진 긴 귀걸이, 반지 등 화려한 액세서리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항상 하이힐을 신어 다리의 라인을 드러내었다. 특히 네일 컬러도 빨간색으로 택해 섹시한 이미지를 더해주었다.

의상은 주로 민소매의 검정색 원피스, 홀터넥 스타일의 빨간색 원피스<그림 59> 또는 나시 형태의 가슴 라인이 드러난 의상을 입었다.<60> 블라우스 류를 입을 때도 가슴골이 보이는 깊이 파인 형태를 선택하였고, 속이 보이는 망사 느낌의 상의<그림 61>를 입어 주로 가슴이 파인다던가 허리가 조이는 옷, 짧은 스커트 또는 화려한 프린트의 의상이 나타났는데, 성적인 암시가 있는 야한 의상으로 남성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또한 강한 이미지를 만들어 능력이나 매력적인 면에서의 힘을 보여주었다.

특히 남성들 앞에서 야한 옷을 입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당당하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에서 관능적이고 성적으로 보여짐과 동시에 폭력적인 면을 암시하였다. 팜프파탈의 캐릭터 표현에 있어서 이와 같이 의상과 액세서리는 시각적으로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 할 수도 있다.

<표 9> 영화 ‘타짜’의 캐릭터 스타일링 비교

구분	청순한 김혜수	관능적인 팜프파탈, 김혜수
의상	레이스가 들어간 밝은 분홍색의 원피스	검정 민소매 원피스, 망사로 된 상의 등 노출된 의상, 짙은 빨간색의 홀터넥 원피스,
액세서리	밝은 분홍색 가방, 귀걸이	화려한 귀걸이, 빨간 매니큐어, 하이힐, 목걸이, 반지
헤어	끝이 뽀치는 귀여운 커트머리	단정한 커트 머리
메이크업	내추럴 메이크업, 흥조 뽀 느낌의 볼터치	하얀 피부 표현, 빨간 립스틱, 짙은 아이라인



(그림 58) 영화 ‘타짜’의 청순한 김혜수 (VOD 직접 캡처)



(그림 59) 영화 ‘타짜’의 김혜수1 (VOD 직접 캡처)



(그림 60) 영화 ‘타짜’의  
김혜수2  
(VOD 직접 캡처)



(그림 61) 영화 ‘타짜’의  
김혜수3  
(VOD 직접 캡처)

2008년 이상기 감독 ‘무방비도시’의 도발적인 섹시미를 가진 아름다운 외모의 여주인공 백장미는 일본에서 활동하다 수사망을 피해 국내에 잠입한 소매치기 조직 삼성과의 두목이다. 타투샵을 운영하지만, 국내 소매치기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고 어릴 적 이모라고 불렀던 엄마의 옛 동업자이자 전설의 소매치기 강만옥까지 영입하려 애를 쓴다. 동대문 일대를 장악하려는 장미는 또 다른 조직인 쌍둥이 파에게 습격을 받고, 조직 검거를 위해 잠복 중이던 광역수사대 조대영에게 도움을 받게 된다. 첫만남에서부터 서로에게 끌리게 되지만, 조대영이 형사인 것을 안 장미는 사라지고, 조형사는 전과자 자료에서 장미를 발견하고 놀라지만, 단서를 쫓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녀의 매력에 더욱 깊이 빠지게 된다. 조형사와 하룻밤을 지낸 백장미는 강만옥이 조대영의 엄마인 것을



알게 되고 강만옥을 더욱 이용하게 되게 된다. 백장미는 강만옥을 배신하고 소매치기 현장을 신고하고, 당뇨가 있던 강만옥은 빗속에서 도망가다 쓰러지고, 뒤쫓던 조형사가 체포하려던 순간에 백장미의 부하에게 칼로 습격을 받게 된다. 강만옥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대신 칼에 찔리고 죽음을 맞이하고, 뒤늦게 백장미를 잡으러 가지만 그녀는 일본으로 도피하기 위해 요트를 타고 조형사가 요트를 향해 총을 쏘는 장면으로 죽음을 암시하며 끝이 난다.

배우 손예진은 청순 가련한 외모로 주로 아름답고 지적이며 약한 여성의 역할을 맡았었지만, 이 영화를 통해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였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 과거 회상 장면에서 긴 생머리에 노메이크업으로 청순한 느낌을 주었던 것<그림 62>을 제외하면, 극중 캐릭터에 맞게 성적인 매력을 표출시키기 위하여, 아이 메이크업은 골드기가 도는 브라운 새도우를 바르고 속눈썹 부위는 검게 칠한 후 그라데이션하고 눈 아래 역시 검게 아이라인을 한 세미스모키 메이크업에 눈꼬리를 살짝 뺀 아이라인을 더하여 눈매를 깊게 보이게 만들어 공격적 이미지와 섹시한 이미지를 나타냈다. 눈이 진한 대신 입술은 강조하지 않고 누드톤 또는 분홍색의 많이 글로시 하지 않은 정도로 촉촉한 느낌의 립글로스를 발랐다. 볼터치는 강하게 넣지 않되 윤기가 도는 살구색 계열로 볼 외곽에서 중앙쪽으로 터치하여 얼굴 윤곽을 잡아주었다.<그림 63>

의상은 주로 등이나 가슴라인을 깊게 판 스타일의 몸매를 드러내는 노출 있는 옷을 입었는데<그림 64>, 그 중에서도 검정색이나 반짝이는 골드색, 진한 빨강색, 진한 파란색의 의상은 화려하면서 에로틱한

분위기를 더해준다. 이러한 의상은 관능적으로 보이게도 하고 고급스럽게 보이기도 하면서 관능성을 무기로 남자를 유혹하려는 팜프파탈로 보여진다. 이러한 의상에 호피무늬 가방, 금색 시계, 링귀걸이와 화려하게 늘어지는 귀걸이, 다양한 색상의 하이힐과 빨간 매니큐어 또는 파란색의 매니큐어 등 화려하고 강한 액세서리로 강한 이미지를 더해주기도 하였다.

헤어스타일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컬에 중간 중간 굽은 컬을 넣어 굽실거리는 긴 머리<그림 65>와 단정한 듯 하면서 강한 이미지를 주는 올백 스타일을 하여, 전체적으로 섹시하면서 쉬크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표 10> 영화 ‘무방비도시’의 외적 스타일 비교

구분	청순한 손예진	관능적인 팜프파탈, 손예진
의상	검정색의 단순한 디자인	등이나 가슴 라인이 드러난 노출 있는 진한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원피스,
액세서리	없음	호피무늬 가방, 하이힐, 빨간 매니큐어, 금색 시계
헤어	긴 생머리	컬이 살짝 들어간 긴 머리, 올백 스타일
메이크업	내추럴 메이크업 또는 노메이크업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 펄이 살짝 가미된 누드톤 또는 분홍색의 입술



(그림 62) 영화 ‘무방비도시’의  
청순한 느낌의 손예진  
(VOD 직접 캡처)



(그림 63) 영화 ‘무방비도시’의  
손예진 메이크업  
(VOD 직접 캡처)



(그림 64) 영화 ‘무방비도시’의  
손예진1  
(VOD 직접 캡처)



(그림 65) 영화 ‘무방비도시’의  
손예진2  
(VOD 직접 캡처)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 영화에 나타난 팜프파탈의 외모에 나타난 캐릭터의 특성을 종합 해 보면 총 4개의 이미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신여성 이미지를 들 수 있는데, 서양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에 현모양처와 대조적으로 나타난 신여성의 의상 스타일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이다. 현대 영화에 나타난 팜프파탈 이미지와는 다른 시대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화에 따라 조금은 다른 스타일이 등장하는 면이 다소 있더라도 따로 신여성 이미지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로 청순한 이미지는 사악한 본심과는 다르게 청순하게 표현된 캐릭터였다. 남성으로부터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청순한 스타일의 외모는 팜프파탈에게 자신의 악함을 숨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단발 또는 긴 생머리에 색조가 절제 된 내추럴한 메이크업, 깔끔한 옷차림으로 청순한 이미지를 만들었다.

세 번째로 관능적인 이미지는 섹시하고 당당한 여성으로 그려진 주인공들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의 특징이 나타난다.

관능적인 이미지의 팜프파탈은 청순한 이미지와 다르게 메이크업은 과장되게 꾸며 공격적인 느낌이 나도록 하며, 의상 역시 신체를 많이 보이게 하여 당당하고 도시적인 느낌이 나도록 꾸며지고 있다. 주로 고급스러운 소재로 만들어진 가슴 라인이 많이 파이거나 신체에 달라 붙는 라인의 옷 등으로 에로틱하며 여성미를 강조하는 의상을 입고, 당당하거나 또는 공격적인 성향의 여성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스모키 등 눈을 강조한 메이크업을 하거나 새하얀 피부에 눈에 띄도록 빨간 립스틱을 사용하여, 내추럴하지 않은 인위적인 표현을 해 준다.

마지막으로 중 앞에 분류한 세 가지에 속하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강하고 독특한 스타일을 전위적인 이미지로 분류하였다. ‘전위(avant-garde)’란 소속부대를 엄호하고 정보를 주기 위해 활동하던 선발대를 의미하는 군대 용어였으나 근대에 와서 사회개혁론자들의 계급 투쟁에서 노동자 계급의 선두에 서서 지도하는 정치 운동의 뜻으로 사용하였고, 점차 무정부주의, 반전통적 혁신주의를 의미하게 되었다. 예술의 분야에서 ‘전위적’이란 용어는 기존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표현 방식을 하는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사상이나 예술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으며 패션에 있어서는 부르주아와 서구의 절대적 이상미에 대항하는 것부터 혁신적인 스타일과 하위 문화의 저항적 스타일까지 통틀어 일컫는다. 즉, 예전의 것을 그대로 따르거나 모방하기 보다 그것을 파괴하고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sup>43)</sup>

전위적 스타일의 패션이라 하면 일반적인 패션 스타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하여 신비하거나 개성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통의 패션에서 시도하지 않는 색이나 액세서리를 이용하여 과감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낼 수 있다. 아름답기 보다는 특이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등장하는 작품을 중심으로 전위적인 이미지라 표현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4가지 이미지를 액세서리를 포함한 의상,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다음의 <표 11>과 같이 비교하였다.

---

<sup>43)</sup>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19j0621a> (Daum 백과사전) 참조

<표11> 한국 영화에 나타난 팜프파탈의 캐릭터 스타일링 분석

구분	신여성 이미지	청순한 이미지	관능적 이미지	전위적 이미지	
특징	도시적, 신비	청초, 우아	에로틱, 오염	과장, 공격적	
의상	의상	한복과 비교되는 양장, 노출 있는 원피스 등 서양 의상	노출이 거의 없는 의상, 아이보리색이나 흰색 재킷,	노출이 심한 홀터넥, 가슴라인이 드러난 원피스,	빨간색, 검정색, 파란색 등 강한 색 의상, 가죽 재킷
	액세서리	구두, 목걸이, 귀걸이, 시계, 팔찌, 브로치, 두건, 선글라스	거의 없거나 목걸이 정도, 단정한 가방	귀걸이, 반지, 목걸이, 팔찌, 하이힐, 가방, 빨간 매니큐어	큰 목걸이, 진한색 가방, 가죽 부츠, 하이힐,
헤어스타일	옆가르마의 짧은 빠마 머리, 땡은 머리, 풍성한 업스타일	단정한 단발, 반묶음 머리	단정한 커트, 곱이 들어간 긴 머리, 올백 스타일	형클어지고 웨이브기 있는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Base	하얗고 매트한 커버력 있는 피부 표현	내추럴한 피부표현	하얗고 매트하지만 얇은 피부표현	창백하고 매트한 피부표현
	Eye	진한 눈썹, 속눈썹, 진한 아이라인,	자연스러운 눈썹, 연한 색조	세미 스모키, 길게 뻗 아이라인	빨간색, 갈색 새도우
	Lip & Cheek	빨간 립스틱	코랄빛, 연한 분홍색 립스틱	빨간 립스틱	빨간 립스틱, 창백한 입술
대표적인 작품	자유부인, 지옥화, 하녀, 불나비	블랙잭, Tell me Something	무방비도시, 타짜	얼굴 없는 미녀, 친절한 금자씨	

## V. 팜프파탈 이미지의 캐릭터 스타일링 작품 연구

본 장에서는 한국 영화에 나타난 팜프파탈 이미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나눈, 신여성 이미지, 청순한 이미지, 관능적 이미지, 전위적 이미지의 4가지 캐릭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의상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을 연출하였다. 즉, 팜프파탈이 등장하는 영화를 만든다는 가정하에, 4가지로 분류한 팜프파탈의 이미지에 따라 시각적으로 차별화된 캐릭터 스타일링의 연출을 실무자들에게 제안하였다.

한 명의 모델만을 선정하고 캐릭터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여 각 캐릭터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2008년 현재 유행하는 패션을 반영하면서 각 캐릭터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의상을 스타일링하고, 헤어와 메이크업을 시술하여 전체적인 이미지를 토털 코디네이션 하였다.

### 1. 모델 선정 :

<표 16> 모델 선정 및 모델의 프로필

	직업 : 학생	나이 : 만 24세
	키 : 170cm	몸무게 : 52kg
	특징 : 키가 크고 머리는 허리에 약간 못 미치는 길이이다. 피부는 하얀 편이고 아직 여드름이 있는 상태이며, 성숙한 이미지를 가졌다.	

(그림 66) 화장하지 않은 얼굴의 모델

## 2. 캐릭터 스타일링 작품

### 1) 신여성 이미지

고증을 통해 당시 유행 경향을 더한 시대극인 코스튬 드라마(Costume drama)<sup>44</sup> 형식의 영화를 만든다고 가정하여, 1950-60년대에 나타났던 신여성형의 팜프파탈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2008년 유행을 접목하여 현재 관객의 관점에서도 어색하지 않으면서, 당시 경향을 적절히 표현하였다.

<표 17> 신여성 이미지의 캐릭터 스타일링

의상	신여성 이미지의 팜프파탈이 등장한 1950-60년대 스타일로 스타일링 하였다. 2008년 여름 유행한 60년대 미니원피스에서 조금 변형된 무릎길이 원피스로 연출하였다.
액세서리	진주 목걸이, 팔찌, 귀걸이와 단아한 검정 토트백으로 60년대 관점에서 도시적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리본 달린 4cm의 검정 구두를 신어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었다.
헤어 스타일	전체적으로 웨이브를 넣은 후, 옆 가르마를 타고 웨이브기를 살리면서 업스타일을 연출하였다.
메이크업	하얗고 매트한 피부 표현 후, 굵고 진한 눈썹을 그리고, 연한 브라운의 새도우를 칠하고, 리퀴드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린 후 속눈썹을 붙였다. 볼티치는 연한 피치 색을 칠하고, 입술은 매트와 글로시의 중간 질감의 코랄색 립스틱을 칠하였다.

<sup>44)</sup> 일정한 역사 시기를 배경으로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해 만든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





(작품 1) 신여성 이미지 상반신



(작품 1) 신여성 이미지 전신

## 2) 청순한 이미지

팜프과탈의 악녀적인 성향을 숨기고 남자들에게 보호본능을 일으킬 수 있는 외적 도구로 사용되는 청순한 이미지를, 깔끔한 스타일의 의상과 내추럴한 헤어스타일, 색조가 절제된 메이크업으로 연출하여 표현하였다.

<표 18> 청순한 이미지의 캐릭터 스타일링

의상	청순한 이미지에 어울리는 흰색을 주조색으로 하였다. 2008년 여름에 유행한 60년대 풍의 장식적 요소가 적은 미니멀리즘 하면서 도시적 느낌의 그라데이션 색상의 미니 원피스와 흰색 롱재킷으로 트렌디하고 깔끔하게 연출하였다.
액세서리	큐빅이 박힌 깔끔한 하트 모양의 귀에 달라붙는 백금 귀걸이와 목걸이, 무늬가 없는 반지를 착용하고, 어깨에 맬 수 있는 작은 숄더백을 들었다. 살색 투명 스타킹을 신고 6cm의 단정한 구두를 신고, 밝은 분홍색 매니큐어를 칠하였다.
헤어 스타일	끝을 부드럽게 둥글려서 뽀 긴 생머리를 반묶음 하였다.
메이크업	2008년 유행한 깨끗한 물광 피부 표현 후, 눈썹은 에보니 펜슬과 브라운 새도우로 자연스럽게 곁을 살렸다. 연한 피치 색 스타파우더를 눈에 바르고, 펜슬로 아이라인을 그린 후 심는 속눈썹을 붙이고 마스카라를 발라 자연스럽게 풍성한 눈매를 만들고, 피치 색 볼터치와 립글로스로 마무리 하였다.



(작품 2) 청순한 이미지 상반신



(작품 2) 청순한 이미지 전신

### 3) 관능적 이미지

블랙의 의상과 올백 스타일의 헤어, 강한 색조가 적절히 표현된 메이크업으로 당당하고 도시적인 이미지의 섹시하고 관능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표 19> 관능적 이미지의 캐릭터 스타일링

의상	가슴을 모아주는 속옷을 입은 후, 노출 있는 스판 소재의 검정 원피스로 관능적인 몸매 라인을 만들고, 살이 비치는 얇은 검정 스타킹으로 섹시한 느낌이 들게 하였다.
액세서리	큰 스와로브스키석으로 장식된 귀걸이와 목걸이, 팔찌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레드와인 색상의 매니큐어를 바르고 광택 있는 검정 클러치백을 들게 하였다. 새틴으로 된 리본과 앞뒤가 글리터로 장식된 검정 하이힐을 신었다.
헤어 스타일	고데기로 찰랑거리는 긴 생머리를 만든 후, 위쪽에 백콤을 넣고 올백으로 스타일링하여 도시적이고 강하게 만들었다.
메이크업	매트한 피부 표현 후 T존과 눈썹 뼈에는 골드빛 흰색 펠로 하이라이트를 주었다. 눈썹 끝을 정확하게 뺀 눈썹을 그린 후, 펠 있는 골드 새도우를 베이스로 바르고 차콜 그레이 색상의 새도우로 아이라인과 쌍꺼풀 라인까지 그라데이션하고 검정색 아이라이너 펜슬을 눈 아래까지 그려 세미스모키 메이크업을 하고 속눈썹을 붙여주었다. 입술은 관능적인 느낌의 짙은 빨강 립스틱 위에 글로스를 덧발라 도톰하게 표현하였다.



(작품 3) 관능적 이미지 상반신



(작품 3) 관능적 이미지 전신



#### 4) 전위적 이미지

개성미가 느껴지고 저항적 느낌이 드는 전위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메이크업 색상으로 잘 사용하지 않으며 신비한 느낌을 주는 색상이면서, 2008년 가을 유행 색상인 보라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강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표 20> 전위적 이미지의 캐릭터 스타일링

의상	얇은 검정 가죽 스커트와 검정 홀터넥 상의를 입고, 펠감 있는 스타킹을 신었다. 신비하면서 사이코틱한 느낌의 짙은 보라색 모피 코트로 강한 느낌을 만들었다.
액세서리	짙은 펠보라의 매니큐어를 바르고, 검정색의 큰 목걸이와 귀걸이, 검정색의 각테일 반지를 착용하였다. 또한 광택 있는 가죽 롱부츠를 신어 강하고 전위적인 느낌을 더하였다.
헤어 스타일	전체컬을 넣은 긴머리에 백콤을 넣고 헝클어뜨려 공격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메이크업	눈썹은 앞에 각진 느낌을 주고 끝은 정확하게 그려 강한 느낌이 나도록 그렸다. 파란색의 펠이 반사되는 짙은 보라색의 스모키 메이크업에 속눈썹을 두 개 겹쳐 붙이고, 아래 속눈썹에도 마스카라를 많이 발라 강한 눈매를 만들었다. 볼터치는 적갈색에 가까운 진한 색으로 밖에서 안으로 당겨주듯 얼굴 윤곽을 살리고, 입술은 2008년 유행하였던 형광빛이 살짝 도는 연한 쇼킹 핑크색을 매트하게 발라주었다.



(작품 4) 전위적 이미지 상반신



(작품 4) 전위적 이미지 전신

## VI. 결론

최근 들어 팜프파탈을 주제로 한 소설과 영화가 많이 소개되고, 패션잡지와 광고, 음악을 포함한 대중 문화 전반에서 악녀를 부정적 시각이 아닌 긍정적 시각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당당한 여성으로 그리고 있다.

팜프파탈은 자신의 매력을 이용하여 남성들을 유혹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남성을 과멸로 이끄는 남성의 시각에서 비쳐지는 부정적인 여성상으로, 문학, 미술 작품을 비롯하여 예술 영역 전반에서 나타난 캐릭터 중 하나였다. 특히 19세기말이 되면서 예술가들에 의해 도발적이고 육감적인 면이 중점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과학 기술의 발달에 의해 영화라는 문화의 과급효과가 매우 큰 대중 예술이 생겨나고, 영화에 나타난 배우들의 스타일은 캐릭터의 외모를 완성하며 시각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영화의 내용을 더 이해하기 쉽게 하였으며, 그러한 스타일은 일반 대중들에게 유행되고 있다.

초기의 서양과 한국 영화에서 팜프파탈은 다른 예술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자들을 유혹하여 과멸과 죽음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전통적인 사회 규범을 어기는 부정적인 여성의 이미지로만 나타났다. 특히 1940년대 서양의 필름 느와르는 2차 대전 후 전쟁에서 돌아온 남성들이 그 동안 그들의 일자리를 대신하였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뺏겨버렸다는 불안감과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는 것에 대한 공포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성들의 보수적인 시각에서 사회적인 여성을 부정적으로 그렸다. 한국의 1950년대 영화 역시, 한국 전쟁 후 서양의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사회적인 여성이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여 서양 문물을 많이 받아들인 여성을 부정적으로 그려내곤 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다양함이 공존하고 있는 문화 속에서 여러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한국 영화를 포함한 현대의 영화에서는 여성적 시각으로 재창조되어 당당하고 사회적인 이미지의 여성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영화에서의 다양한 팜프파탈의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하여 표현되는 의상,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은 시대적인 영향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시대의 유행을 창조하고 있다. 초기의 한국 영화에서 팜프파탈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현모양처형 여성과 대조되어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신여성으로만 표현되었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청순한 이미지, 관능적인 이미지, 전위적인 이미지로 다양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캐릭터 스타일링을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여성 이미지에서는 주로 한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은 현모양처와 대조적으로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가슴이 드러나거나 민소매의 원피스나 바지를 입고, 서양식 구두와 액세서리를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흑백 영화라는 한계 때문에 메이크업의 색조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1950년대와 60년대 유행하던 짙고 두꺼운 눈썹과 선명한 아이라인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며, 헤어스타일 역시 쪽머리를 한 현모양처와 대조적으로 짧은 머리에 웨이브를 넣는 빠마 머리를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본연의 악한 심성을 감추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 청순한 이미지는 내추럴한 화장과 노출이 많지 않은 단정한 옷이 특징이었다. 예전보다

얇아진 자연스러운 피부표현에 색조가 절제된 메이크업을 하고, 헤어스타일은 주로 단정한 스타일의 짧은 생머리로 등장하였다.

셋째, 팜프파탈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라 할 수 있는 관능적인 이미지는 눈이나 입술에 포인트를 준 메이크업을 하고, 섹시한 의상을 주로 입었다. 눈 주위를 검게 표현하는 스모키 메이크업을 하여 눈을 강하게 만들거나, 입술을 아웃커브 형태로 짙은 빨간색을 이용하여 강조하였다. 의상은 노출이 많은 홀터넥이나 튜브탑 스타일의 상의와 원피스가 자주 등장하였고, 높은 하이힐을 신었다. 액세서리 역시 크고 화려한 것을 주로 착용하였으며, 헤어스타일은 머리를 자연스럽게 늘어뜨려 여성스럽게 보이게 하거나 올백스타일을 하여 당당한 여성으로 보이게끔 하였다.

마지막으로 독특한 스타일의 전위적 이미지는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색상을 주조색으로 하여 메이크업을 하거나, 머리를 헝클어뜨리는 스타일로 하고 의상 역시 강한 이미지의 가죽이나 모피 소재로 만들어지거나, 강한 색상으로 된 옷들을 선택하여 강하면서 특이하게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영화에서 표현된 팜프파탈의 캐릭터 스타일링을 분석해 봄으로써 그 시대 여성들의 의상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모두를 아우르는 패션의 유행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시대의 다양한 패션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팜프파탈이 나타난 모든 한국 영화를 분석하지는 않았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영화를 직접 캡처한 사진을 제시하면서 분석하여, 사진의 선명하지 않고, 또한 당시 스타일링했던 모든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본 연구자의 주관적 분석만을 위주로 하였다.

그러나 팜프파탈이 등장한 주요 영화를 분석함으로써 시대 변화에 따른 여성의 이미지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나타난 의상,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한 캐릭터 스타일링을 분석하여 여성의 외적으로 표현된 이미지를 분석하였고, 그러한 외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캐릭터 스타일링 방법을 제안해 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또한 스타일링을 제안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영화 의상과 미용의 변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현재 팜프파탈 이미지가 매우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 나타난 팜프파탈 여성 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한국 여성의 이미지 변화와 발전에 도움이 되고 새로운 여성상을 정립하고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또한 앞으로 한국 영화에서 더욱 다양한 스타일의 팜프파탈 이미지가 표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 참고문헌

### <국내 단행본>

- 맹수진(2004), 『한국영화, 섹슈얼리티를 만나다』,생각의 나무  
블라디미르 나보코프,한경희 역(1995), 『로리타』,큰산  
에밀 졸라, 정봉구 역(1989), 『나나』, 을유문화사  
이명옥(2003), 『팜프파탈』,다빈치  
제인 빌링허스트, 석기용 역(2005), 『요부, 그 이미지의 역사』,이마고  
한국심리학회(2003), 『현대 심리학의 이해』, 학문사  
한국 영상 자료원(2006), 『한국영화를 말한다 : 한국영화의 르네상스  
2』,이채  
호현찬(2007), 『한국영화 100년』, 문학사상사

### <국외 단행본>

- Allen, Virginia M. (1983), 『The Femme Fatale : Erotic and Fatal  
Muse』,The Whitston Publishing Company  
Silver, Alain 외 (1984), 『Film Noir : An Encyclopedia Reference to  
the American Style』, Random House

### <논문>

- 김일영(1999), 「『Lewis의 수사 The Monk』에 나타난 회의주의」, 한  
국근대영미소설학회 근대영미소설 제6집 제1호  
김차애(2006), 「한국 영화에 나타난 팜프파탈 이미지 연구」,서강대 언론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정란(2004), 「회화에 나타난 ‘파토스적인 이미지’ 표현 연구」,홍익  
대 회화과 석사학위 논문



- 송미숙(1990), 「보들레르와 상징주의」,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제 2집
- 윤보원(2005), 「영화에 나타난 팜프파탈 이미지와 스타일 연구」,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수(1995), 「에드바르 뭉크(Edvard Munch)의 <사랑> 연작에 관한 연구」,성신여대 석사학위 논문
- 이화진(1998), 「팜프파탈 Femme Fatale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현주(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팜프파탈 이미지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윤정(2004), 「모더니즘의 알레고리와 비전으로서의 필름느와르 : 팜프파탈,검열,하드보일드의 중층 결정으로서의 장르적 재구성에 대한 연구」,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박사과정 논문

<국내 인터넷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

네이버 영화 - <http://movie.naver.com>

한국 영상자료원 - [www.koreafilm.or.kr](http://www.koreafilm.or.kr)

한국 영상 자료원 영상자료실 - [library.koreafilm.or.kr/](http://library.koreafilm.or.kr/)

한국 영화 데이터베이스 - [www.kmdb.or.kr/](http://www.kmdb.or.kr/)

<국외 인터넷 자료>

ARTCYCLOPEDIA(서양미술 자료) - [www.artcyclopedia.com/](http://www.artcyclopedia.com/)

The Feminism and Women's Studies -

<http://feminism.eserver.org/theory/papers/lilith/bodybeau.html>

The internet movie database(서양영화 자료) - [www.imdb.com/](http://www.imdb.com/)

## ABSTRACT

A study on the Femme Fatale Image and  
Character Styling in the Korean Films  
– Focused on Clothes, Hairstyle, and Makeu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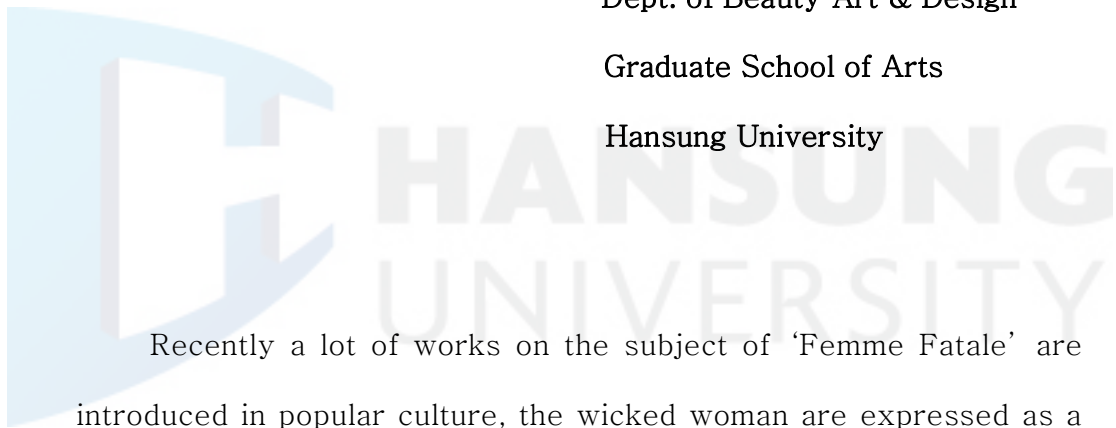
Yoo, Han-na

Major in Make up Art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Recently a lot of works on the subject of 'Femme Fatale' are introduced in popular culture, the wicked woman are expressed as a socially successful and stately woman in positive sight.

Femme Fatale was one of the characters such a negative woman who tempted men by her charm and achieved the goal, at the same time, led men to the ruin. Especially in the late 19<sup>th</sup> century, artists focused on her provocative and voluptuous charm.

The film was born by advancements of scientific technique, style of the actresses in films completes the appearance of the character and make easy to understand story of film.

In this study, the change of the woman' s image with the times and the external image of Femme Fatale with character styling which includes cloths, hairstyle and makeup in prominent Korean films are analyzed. Moreover, the way of the character styling to express the femme fatale image effectively are suggested.

In initial Korean film, Femme Fatale was expressed only a negative modern woman who violates the traditional norm and act socially by contrast with a wise mother and good wife style woman who keep the tradition. But, today, Femme Fatale has various images such as 'Pure' , 'voluptuous' , 'avant-garde' , the result which researches the Femme Fatale character styling is as following.

First, there is a 'The image of the Modern woman' of 1950' s and 1960' s Korean Films. Femme Fatale of that image wore cloths of western style and has short and permanent wave hair, as opposed to the wise mother and good wife who wore the Korean traditional clothes and the rubber shoes mainly. Because of limit of black-and-white films, hues of makeup did not appear well. But, 1950's and 60's popular style appeared such thick eyebrows and clear lines and so on.

Second, 'The image of the Pure woman' is used as the tool

which hid the scoundrel mind, wore decorous clothes and had natural makeup which controlled colour and straight hairstyle.

Third, 'The image of the Voluptuous woman' which is representative image of Femme fatale, had smoky eyes makeup and out-curved red lips. That kind of Femme Fatale wore sexy clothes such as halter neck, tube top style and so on. The accessories are gorgeous and big as well, hairstyle is feminine and natural long hair, or all-back style.

Last, 'The image of the Avant-garde woman' which is very unique, have a makeup using unusual colour, dishevel hair. Clothes were selected strong styles mostly, used strong colour or made by material of leather or fur.

